금수강산



3
1994


봄날의 호수가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3 호(루계 제5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3대혁명전시관을 찾은 해외교포들
사진 김휘률

표지 4면 산촌의 봄
사진 김광진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2

혈육의 정은 끊을수 없어

얼마전 우리는 수십년만에 해외에 있는 혈육에게서 첫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작곡가 김광조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은 평양의 대동강기슭 아늑하고 경치 아름다운곳에 자리잡고있는 아빠트에 있었다.

반갑게 맞이하는 광조의 안내로 방안에 들어가 앉은 우리는 오래간만에 소식을 알게 된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싶은 마음이 앞섰다.

우리의 심정을 눈치챈 그는 정히 보관하고있던 편지를 꺼내주었다.

《광조야, 네가 살아있다는 꿈같은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 눈물속에 이 글을 쓴다.

…

한많은 그 세월에 이 누이는 어린 너를 버리고 떠났는데 네가 어엿한 작곡가라니 이게 웬말이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서 살고있는 한 녀인이 50년나마 나누지 못한 애틋한 혈육의 정에 휩싸여 쓴 편지의 구절구절에는 뜨거운 눈물이 어려있는듯싶었다.

어느덧 김광조는 추억에 잠긴듯 눈시울을 적시더니 멀리 흘러간 옛 시절이야기로 우리의 심중을 끌었다.

리 별

1943년 5월 어느날, 남포 해변가 마을 교회당이 바라보이는 나즈막한 언덕바지에서 애젊은 처녀 광옥은 어머니, 동생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있었다.

《굳이 떠나려느냐?!… 어디에든 거처하면 소식을 전하거라.》

어머니의 서글픈 음성이 딸의 가슴을 옥죄이는데 5살짜리 막내동생 광조가 누나의 치마자락을 부여잡았다. 《누나, 가지마. 우리 함께 있자. 응?!》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처롭게 쳐다보는 동생.

광옥은 끝내 주저앉으며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다.

《광조야, …어머니말 잘 들어…》

이미 지치고 쉬여버린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하자 그뒤에 다가섰던 남동생 광석이가 엉엉 소리내여 울었고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먼 하늘만을 쳐다보았다.

이날 부두가에까지 이어진 이 가정의 섧은 울음은 멀리 떠나가는 딸, 누나와의 작별에서만 온것이 아니였다.

얼마전 그들은 가정의 기둥이고 가장인 아버지를 잃었다. 3.1운동때부터 빼앗긴 나라를 찾는 싸움에 뜻을 두고 목사로 활동하면서 애국의 의지를 굽히지 않던 아버지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동경음악대학에서 공부하던 광옥이가 아버지가 옥사하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받고 경황없이 집에 당도하였을 때 그는 이미 산중에 묻혀있었다.

《아버지, 이게 웬 일이세요? 네?! 아버지―.》

봉분우에 엎드려 흙을 허비며 애타게 통곡하는 그의 원성은 대기를 찢으며 울려갔다.

그날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이 흐를수록 광옥의 가슴속에 아버지와의 영결에 대한 비애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허덕이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번져졌다.

(이토록 짓밟힌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수 있단말인가?!)

하여 그는 불행과 리별에 겨워우는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 도탄속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등지고 멀리 떠나갔던것이다.

그가 떠나간지 2년만에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어린 두 자식(광석, 광조)을 남겨놓고 비명에 세상을 떠났다.

피줄이 동강나는듯한 아픔이 겹쳐드는 이 가정의 불행.

이제 두 형제가 의지할 품은 어디에 있는가?

그후 광석이도 누이를 찾겠다며 동생을 먼 친척벌되는 집에 맡기고 길을 떠났다.

이것이 어린 광조가 지금껏 혈육을 다시 만날수 없게 한 리별로 될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세월이 흘러서

광조는 남포에서 7살 되던 해에 해방을 맞이했다.

온 나라는 조국광복의 기쁨으로 들끓었고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생활이 펼쳐졌다.

벅찬 현실속에서 김광조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다. 그는 인민을 위한 참정치를 실시하는 새 제도가 무의무탁자에게 베풀어주는 배려로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배웠다.

나라에서는 그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 평양음악무용대학에 보내주었다. 대학을 졸업한후 광조는 음악예술부문에서 선률창작의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갔다.

풍만하고 우아한 정서를 타고흐르는 그의 선률은 언제나 커다란 행복감에 휩싸여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있는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다.

선률창작은 그대로 작곡가의 생활체험의 결정체였으며 생의 메아리였다.

세월이 흐른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고향에 갔던 광조는 하루가 다르게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되여가는 고향산천에 대한 커다란 감흥속에 솟구치는 곡상으로 노래 《살기 좋은 고향마을》을 창작하였다.

그의 창작은 늘 현실체험속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골고루 잘살며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한형제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정서적이고 우아한 형상속에 담는것이 그의 창작적특질이였다.

《고마워라 사랑의 품이여》, 《만경봉의 명절맞이》,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곳》, 《나의 고향아》, 《보통강의 봄버들》, 《타향의 봄날에》, 《지상락원에서 사는 행복》, 《백두산에 흰눈 내리네》를 비롯하여 수백편에 달하는 그의 작품들.

그의 열정적인 창작태도는 언제나 인민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삶의 긍지와 행복은 1970년대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창작활동을 벌리면서 절정에 올랐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그는 창작적기량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조할 때에 김광조의 작품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인민의 감정과 요구에 맞는것으로 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곡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참 좋은 선률이라고 하시며 작곡가에 대한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뿐만아니라 노래 《락원의 노래싣고 보통강은 흐르네》를 비롯하여 그가 좋은 곡을 창작했을 때마다 기뻐하시며 온 나라에 널리 울려퍼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과정에 그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도 여러차례 받아안았다.


김광조와 그의 가족들

그 사랑과 믿음속에서 최상의 영광과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 작곡가는 그 심정을 선률에 담아 노래 《수령님 모시고 길이 살리라》를 창작하였다.

그의 생활과 신념의 메아리되여 울려가는 이 노래는 오늘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서 우러나오는 념원속에 끝없이 불리워지고있다.

김광조의 가정에는 전기기사로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해온 안해와 작가가 될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고있는 아들 례성, 건축기사로 일하고있는 딸 애성이 있다.

행복한 가정에 웃음소리 높아질때마다 그는 이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에 휩싸이군하였다.

그럴수록 광조가 더욱 잊지 못하는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련상되는 누이와 형의 모습이였다. 혈육의 정은 어쩔수 없는것이여서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형제가 그리워져 어릴적 다정한 목소리로 누이와 형을 불러보군하였다.

그러던중 해당 기관으로부터 동생의 소식을 전달받은 광옥누이가 머나먼 미국땅에서 편지를 보내왔던것이다.

누이는 편지에서 동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생이 흘러왔다는 이야기, 평양에서 흘러간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어느 한 나라에 가서 동생을 찾으려고 조선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정다운 평양말씨에 접하는 순간 주저앉아 울었다는 이야기 등을 쓰면서 하많은 사연을 작은 지면우에 다 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누이는 고아였던 동생을 그토록 나라와 인민이 사랑하는 작곡가로 키워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 비길데 없다.… 너를 그같이 키워주고 재능의 싹을 틔워 내세워준 조국에, 너의 웃분들에게 내 깊숙이 엎드려 삼가 절을 올리는바이다. 너는 조국에 꼭 충성을 다해야 한다. 너의 숭엄하고도 정서적인 그 감정의 세계를 노래로 날려라. 그것은 너의 삶을 영원히 빛나게 할것이다.…》라고 썼다.

누이는 편지에 아버지가 옥중에서 남긴 유시도 적어보냈다.

나의 몸은 오래동안 고문을 받았지만
순수한 강철처럼 강해졌나니
침묵이 계속되는 오랜 고독한 생활속에서도
넋은 순금처럼 이루어졌어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재롱부리며 철없이굴던 추억밖에 없던 김광조는 아버지의 유시에서 받은 커다란 충격과 감흥을 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님의 애국적인 넋을 고이 간직하고 해외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누이와 형이기에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애타게 혈육과 고국을 그리는 누이, 조국통일친목회 부회장의 사업을 보면서 통일애국사업에 애쓰신다는 형님, 그들이 곧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겨레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것은 뜨거운 혈육의 정과 민족의 넋을 뉴대로 오늘 그 어데서나 통일의지에 불타고있는 우리 겨레의 모습인것이다.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이역의 누이에게 보내는 김광조의 회답편지 사연 그대로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채금옥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3)중에서

동녕현성전투

라자구담판후 반일부대련합판사처는 구국군과의 사업을 맹렬하게 벌리였다. 판사처일군들은 린접의 산림대들에도 침투하여 그들을 반일련합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공작을 하였다.

이 기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1933년 9월초 라자구부근의 로모저하라는곳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리삼협을 비롯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동녕현성(삼차구)전투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련합회의를 열고 작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의성사령의 제의에 따라 우리가 작성한 작전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우리가 라자구담판후 동녕현성을 즉시에 공격하지 않고 두달이상의 준비기간을 설정한것은 이 전투의 의의를 특별히 중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항일유격대의 합법화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았고 우리와 구국군부대사이에 맺어진 통일전선에 관한 협약도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발효를 보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전투를 잘하면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이 반석같은 기초우에 서는것이요, 패전으로 끝나면 라자구담판의 성과는 허실로 돌아가고 축조과정에 있던 련합전선은 붕괴를 면치 못할것이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잘못하면 우리가 혈전을 통하여 힘들게 이루어놓은 항일유격대의 군사적권위에도 오점이 생길것이였다. 구국군이 통일전선을 하다가 녹아났다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시험을 치르는셈이였다. 우리의 정찰자료와 지방조직들이 보내온 통보에 의하더라도 동녕현성에는 이시다가 이끄는 500명 정도의 일본관동군 병력과 경탄장이 지휘하는 1개 련대정도의 위만군 병력이 있고 그밖에도 위만경찰들과 자위단무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여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게다가 적들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무기들로 장비된 견고한 성새속에 들어박혀있었다.

그때 반일부대의 어떤 지휘관들은 동녕현성을 점령할수 있는 가능성은 30프로밖에 없다고 하였다.

…

련합회의에서 작전방안이 채택되자 반일부대련합판사처 성원들은 호진민과의 련계밑에 아무 부대에서는 몇명, 아무 부대에서는 얼마 하는 식으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시킬 병력수를 부대별로 할당하였다.

우리는 왕청, 훈춘, 연길에서 각각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그들을 라자구로 불렀다.

왕청에서 내가 데리고 간 1개 중대와 백일평대대정치위원이 훈춘에서부터 인솔해가지고 온 중대는 1933년 8월말에 라자구근처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

라자구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반일부대련합판사처 동무들의 안내를 받아 오의성사령의 숙소를 찾았다.

우리는 구면으로서 화기애애한 담화를 하였다. 6월의 첫 담판때와 같이 서로 상대를 떠보는 담화가 아니라 인간대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허심탄회한 담화였다.

내가 라자구로 갈 때 제일 우려했던것은 오사령이 그동안 동녕현성전투를 포기하지나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리청천과 같이 우리와의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의성이 동녕현성전투를 단념하고 우리와 구국군과의 관계를 협상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세우도록 설유하지 않았겠는가?… 반일부대련합판사처 일군들은 리청천이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합작이 류산되도록 채세영을 부단히 꼬드기고있는데 그의 리간질이 오사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몇차례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였다. 오의성의 통일전선의지는 여전하였고 동녕현성전투를 잘하여 구국군이 왕년에 당한 패배를 만회하려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

왕청중대와 훈춘중대들은 라자구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군중정치사업방향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국군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이번 전투에 달려있다. 유격대가 선봉에서 잘 싸우면 구국군이 우리를 따라오는것이고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구국군이 우리를 저버리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일상 생활과 전투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번 전투는 총 몇자루나 쌀 몇포대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통일전선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 통일전선의 명줄을 걸고있다. 전리품은 구국군이 다 가지라고 하자. 그들이 약담배를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정치도덕적측면에서의 양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모두다 명심하자.…

반일부대의 지휘관들중에서 동녕현성전투방침을 제일 적극 지지해나선 사람은 사충항려단장이였다. 항일유격대가 라자구에 체류하는동안 나와 사려장사이에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진실한 우애가 싹텄다. 유격대와 구국군의 대부대들이 라자구를 떠나 동녕현성으로 행군해갈 때에도 그는 줄창 우리하고만 같이 다니려고 하였다. 숙영지도 우리의 곁에 정하려고 하였고 전투시에도 우리 부대와 함께 행동하고싶어하였다. 라자구에서 동녕현성까지 수백리를 걸어가는 그 나날들에 나와 사려장은 서로 리해를 더욱 깊이하였다.

9월초에 라자구를 떠난 원정부대들은 며칠간의 시간을 로상에서 보냈다. 행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참다운 인간적풍모를 증시하는 계기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와 구국군의 정치도덕적차이는 실생활과 행군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민의 군대답게 행동하였다. 상공당이 있어도 마스지 않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있어도 손을 대거나 곁눈을 팔지 않았다. 중국인부락에 들리면 오락회도 하고 선전화도 붙이고 구두선전공작도 하였다. 다른 부대들이 들면 페를 많이 끼쳤지만 우리는 도리여 주민들을 도와 물도 길어주고 망도 갈아주고 마당질도 해주고 울바자도 엮어주었다.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는 전책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백성들을 알아보는 좋은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부대들은 다 성품이 곱지 못하고 행실이 거칠어서 글렀는데 김사령네 부대는 점잖고 싹싹하고 인정미가 넘쳐서 살이라도 떼주고싶다는것이였다.

…

어떤 구국군대원들은 어두운 밤에 곡식낟가리만 보아도 일본놈군대라고 하면서 삼십륙계를 놓았다.

이런 일이 몇차례 되풀이되자 우리는 유격대대렬을 맨 앞장에 세우고 구국군부대를 후위로 돌려놓았다. 이 별치 않은 조치는 유격대원들을 분발시키였다. 그들은 동녕현성전투의 승패가 곡식낟가리와 일본군을 혼동하는 구국군에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다는것, 따라서 통일전선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결정적힘도 자기자신들에게 있다는것을 통감하고 수걱수걱 행군을 다그치였다.

유격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하였다.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를 내걸고 론쟁도 하였다.

…

우리는 로흑산에서 왕청유격대와 훈춘유격대의 련환모임을 조직하고 다시한번 동녕현성전투의 목적과 군사정치적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

동녕현성전투는 1933년 9월 6일밤에 시작되여 9월 7일낮에 끝났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하면서 한 전투를 이틀씩이나 끈 실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녕현성을 치는데서 우리가 력점을 찍은 주공방향은 서문밖의 릉선에 2층으로 축성되여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에는 여러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이 배치되여있었다. 포대와 일제침략군부대 본부사이에는 깊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가 굴설되여있어 필요하다면 예비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여 공격을 견제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것도 이 서산포대때문이였다.

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훈춘중대를 짜작골이라는곳에 배치하고 왕청중대를 주공방향에 진출시켜 서산포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밤 9시 적진에 은밀히 접근한 유격대의 파괴조는 성시공격을 알리는 나의 총성신호와 함께 적포대를 향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를 통하여 력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적아간에는 몇시간동안 치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나는 서문으로 시내에 돌입한 유격대로 하여금 적병영을 봉쇄하게 하는 한편 일부 력량을 포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다음 파괴조를 발동시켜 맹렬한 작탄공격으로 서산포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동틀무렵이 다되여서야 포대는 저항을 중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의 주력부대는 일본군수비대병영을 강철그물 같은 봉쇄망으로 둘러싸고 적의 필사적인 반돌격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키였다. 일본군은 북문으로 도망쳤다.

편의대로 가장하고 시내에 미리부터 들어가있던 구국군부대들과 동문과 남문을 거쳐 성시에 돌입한 구국군부대들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였다.

위만군부대 본영에서는 대표를 보내여 협동하여 일제침략군을 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합작이 실현되면 성시가 완전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채세영휘하의 일부 부대들이 위만군이 장악하고있는 상점을 마구 털고 주민가옥들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만군은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질풍같은 기세로 우리들을 공격하여나섰다. 일본군수비대도 이에 합세하였다.

적의 맹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구국군의 일부 부대들이 점령구역을 내던지고 현성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일각으로 압축하였다. 구국군도 이에 고무되여 병기공장을 점령하고 군수품적치장들을 습격하였다. 시가전은 여러 시간동안이나 계속되였다.

련합작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다고 인정한

동녕현성전투 당시 기관총을 걸었던 건물과 동녕현성시가



사충항

채세영

나는 아군에 철수명령을 내리였다. 유격대는 시내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현성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부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우리가 사충항려단장이 중상을 당한채 성시안에 쓰러져있다는 보고를 받은것은 이때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지판에 려단장을 남겨둔채 성시밖으로 도망쳐버리였다. 부관도 그를 돌보지 않고 살구멍을 찾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전리품타령을 하던 구국군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약담배와 일본제전지를 꿈꾸고있을 때 나는 략탈과 그것이 전반적인 전투행정에 미치게 될 후과만을 우려했을뿐이였다.

그런 략탈은 이미 전투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가는 놀라운 행실이 발로되였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셈이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급한 행실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구국군의 략탈행위와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간 불충불효의 행위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리기심과 비겁성으로 전환된것이다.

…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낸 사충항을 등에 업고 그를 화력으로 엄호하면서 부대를 고지쪽으로 무사히 빼돌리였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간 사충항의 부하들을 벼락맞을놈들이라고 욕하였다.

구국군대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사실 욕지거리가 나갈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소행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에 금이 가는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녕현성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였다는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동만땅에서 이전날처럼 또다시 붉은기를 들고다니며 보무당당히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구국군의 의식속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모습을 심어주었다.

그후부터는 중국의 반일부대들이 우리를 해치는놈들만 있으면 자청하여 따라다니면서 답새겼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번째로 생명을 받아안은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사령이 준것이다. 김일성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첫째가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충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 같은 소문이 만주각지로 날아갔다.

동녕현성에서부터 라자구까지 연연 수백리를 헤아리는 귀환의 길에서도 나는 노상 사려장의 곁에 있었다. 첫날은 우리가 줄곧 담가를 들고갔다. 구국군대원들은 자기네 상관이 유격대원들의 담가에 실려가는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곁에 접근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부관이 대원들과 함께 자기네 사령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쫓아버리였다.

부관이 세번째로 우리 대렬로 찾아오자 나는 구국군에 사충항이 누워있는 담가를 인계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도 지각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제는 자기네 과실을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담가를 들고갈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넘겨준다면 그들이 전장에서 저지른 죄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씻게 될수 있을것이라고 대원들을 설복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을 넘겨주자 구국군대원들은 황송하여 절까지 하였다.

…

사충항은 나보다 나이가 열둬서너살 더 먹은 년장자였지만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나와 피로 맺어진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였다. 동녕현성전투가 있은후 그는 부대의 주둔지도 마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구에 정하였다. 우리는 친척집 문턱을 넘나들듯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교를 두터이하였다.

사려장의 총상자리를 완치시키려고 나는 그에게 약도 많이 가져다주었으며 그의 사상을 개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주었다. 그런 과정에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고 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도 성장하였다.

사충항은 1934년 6월의 라자구전투에서도 반일련합작전을 위하여 잘 싸웠고 인민혁명군에 편입된후에는 독립 2사 사장으로 적지 않은 무공을 세웠다. 그는 전투때마다 맨 앞장에서 싸창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하군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세상에 사려장 같이 훌륭한 지휘관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였다. 다른 구국군부대병사들도 사려장을 무척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런 병사들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탈출하여 사충항의 부대에 넘어왔다.

사충항은 로송령전투때에도 최선두에서 나가다가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다. 총탄이 배를 관통하지 못하고 속에 박혀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인차 운명하였다. 사려장의 추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애달프게 그를 추억하였는지 모른다.

동녕현성전투의 포화속에서 우리와 함께 항일로 튼튼히 결합된 채세영도 후에는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여 5군 부군장을 거쳐 군장을 하였다. 그는 북만을 활동거점으로 삼고 주보중의 수하에서 우리와의 형제적뉴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나와 채세영사이에는 밀접한 련계가 있었다.

…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처럼 수많은 로고와 인내와 희생을 동반하였다. 혈형이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결합이 어찌 아무런 곡절도 고충도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적들은 동녕현성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련 사흘동안이나 화장하였다. 그대신 우리는 호진민을 잃었다. 그는 라자구로 돌아오는 길에서 오발로 객사하였다.

투쟁과 생활의 지침서

재카나다교포의 한사람인 나는 경모하여 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무한한 감동속에 읽었다.

심산유곡의 수정같은 샘물인듯 잔잔히 흐르다가도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에 내려치는 폭포인듯 격동에 넘치어 변화무쌍하는 주석님의 탁월한 문장에 나는 줄곧 넋을 잃은채 연송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읽고 또 읽었다.

인생황혼기의 초입구에 들어 수령님의 회고록을 통하여 비로소 어렴풋이나마 조선의 근대사를 알게 되었은즉 나자신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청맹과니였던 지난날에 대하여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내가 회고록을 읽으며 먼저 알게 된것은 5천년력사국인 우리 조선이 어찌하여 망국의 비운을 들쓰게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부패무능한 리조 500년력사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할 엄숙한 시기에 애국력량은 분산되고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오히려 놈들을 등에 업고 기울어지는 국운을 피바다에 처박았으니 참으로 의분을 억제할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생사기로에서 헤매일때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은 조국광복의 일념을 안고 겨레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준엄한 력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셨으니 이 어찌 조선이 받아안은 축복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그 성스러운 조국광복위업을 위해 만경대고향집사립문을 나섰던 혁명일가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고 수령님한분만 일가분들의 뜻을 이룩하시고 돌아오셨으니 먼저 가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일가분들을 추모하여 서글퍼지는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회고록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수령님께 **《…너는 공부를 해도 조선을 위해 배우고 기술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잠자는 나의 령혼을 깨워 재생의 생명수를 부어준것만 같다. 나는 이 금언을 음미해볼 때마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했단말인가. 주마등처럼 착잡하게 흘러간 고달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던 수령님의 어린 시절의 거울속에 나의 어린 시절을 비추어본다.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는 아버님의 초연한 모습앞에서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에 새기시였고 3.1인민봉기때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강산을 피로 물들일 때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고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다고 하신 수령님의 독백속에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내가 살아온 남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망국시절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력사적사실들을 망각의 늪속에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깔보며 왜놈들의것을 덮어놓고 좋게만 보고있으니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사대주의가 판을 치는 민족혼의 불모지대이다. 그 영향력은 이역만리에까지 미치고있다.

나는 때없이 조용히 상념에 잠기군한다.

인생의 전반기를 이른바 《자유세계》라고 줴치는 자본주의사회의 탁류속에 흘러보내고 이미 생의 말년을 바라보게 되였지만 여직 참다운 조국의 모습을 조명해볼수 있는 시간적여유도 또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저 《자유》라는 허울속에서 청운의 꿈을 약육강식의 질곡속에 묻어버리고 그저 그날그날을 한쪼각의 빵을 갈구하며 짐승처럼 살아왔다. 그러던 내가 그토록 방황하여 찾던 진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통하여 얻은 그 기쁨은 아마 천만금을 횡재한 기쁨으로도 결코 비길수 없을것이다.

그렇다. 어리신 나이에 벌써 아버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국의 아름다움과 백의민족의 선량하고 순결하며 절개높은 량심을 헤아리신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에 나는 줄곧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 또한 그이께서 다정한 친구의 우정과 의리를 간직하고 강바람사나운 압록강을 건느시며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셨다는 회고록의 구절은 나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볼을 적시게 하였다.

또한 회고록에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의 사상, 3대각오와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은 오늘 우리 겨레에게 민족통일의 명맥을 이어주는 고귀한 유산이며 나아가서 세계 피압박민족해방의 귀중한 재보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의 모든 륜리도덕이 이그러진지 오랜 오늘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이의 회고록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생활의 지침서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회고록에서 화성의숙에서 환멸을 느끼신 수령님께서 그곳을 결별하고 나와 새세대청년들에 의거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저 혈전만리길을 헤쳐갈 마음을 다지신 위대한 인품, 봉건주의, 민족주의, 부르죠아 사상을 꿰뚫어보시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주의사상에서 인민의 리상을 찾으시였으며 그의 종국적실현을 위하여 《ㅌ.ㄷ》를 조직하고 우선 조국광복을 당면목표로 내세우신 수령님, 그때 그이의 나이는 불과 10대의 소년이 아니시였는가.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화성의숙 숙장과 헤여질 때 그의 어깨우에 내린 함박눈을 털어드리지 못한것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옳바른 지도자를 찾지 못하여 모지름을 쓰다가 그토록 애국의 길에서 심장을 불태우던 녀걸 리관린 등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성품, 그때뿐아니라 오늘까지도 애국애족의 길을 밟으려는 사람에게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은 나에게 끝없는 감동을 안겨주었다.

나의 망막에는 길림육문중학교에서의 수령님의 불타는 학구, 그 과정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성장모습이 비쳐짐과 동시에 상월선생도 상기하게 된다. 만약 아직도 그가 살아있었다면 수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정향나무꽃이 만발한 교정을 거닐며 그날처럼 희망과 락관에 넘쳐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담소하시리라. 상월선생이 문학은 인류를 지성으로 이끄는 등불이라고 하였다면 주체사상은 민족의 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위한 휘황한 태양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인간사랑의 화신, 인류의 태양이시다.

오늘날 썩을대로 썩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선생이 제자를 롱락하고 희롱하는 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교단에 서주었던 하찮은 은사도 또한 독립전에 몸바친 뭇사람들을 잊지 못하시고 그들을 자주 추억하시였다. 리준, 안중근 렬사의 애국적장거를 두고 수록한 회고록의 대목에서 나는 류다른 감동을 받았다. 사실 그들은 벌써 력사에 깊이 묻힌 인물들이였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한생을 두고 회고할수 있는 선생이 있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고 서술하시였다. 그러나 사대와 교조의 노예가 되였었고 그날그날 한쪼박의 빵을 얻기에 길들여진 인간 모르모뜨가 되여버렸던 나의 경우는 다만 잃어버린 청춘이 원통할 뿐이다.

앞에서도 썼지만 나는 이미 50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지나간 인생행로에서 웃으며 되돌아볼 곳은 없다. 그래선지 회고록에서 받은 감흥이 중단없이 되풀어진다.

독버섯처럼 엉켜있는 각이한 파쟁의 숲속에서 오직 정갈한 물처럼 순결한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여신 항일의 길, 그 길이 어떤 진리를 지침으로 열리게 되였는가.

인민이 있는곳이면 어데든지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인민을 사랑하는 그곳에서만 큰 기쁨을 얻으리라.

나는 동서고금의 력사에서 아직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귀기울이며 인민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탁월한 향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나도 신도였다. 전세에 별로 지은 죄도 없는데 너무도 큰 불행과 고통을 겪었고 오늘은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구슬픈 이민살이를 하고있는데 행여나 하고 여러 교를 믿어왔었다. 하지만 나의 운명을 그 어느 교도 건져주지 못하였다.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느님을 교세확장과 돈벌이에 리용하고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참사랑을 찾는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오늘 내가 살던 남조선에도 기독교인이 총인구의 근 40%에 달한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각종 범죄가 범람하여 온 사회가 시궁창처럼 썩어가고있다. 만약 사랑과 정의의 상징인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왜 동방례의지국으로 일러왔고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거듭되는 외래침략을 받아왔고 20세기중엽에 이르러 남북이 분단의 슬픔을 안고 오늘까지 이렇게 몸부림쳐야 한단 말인가.

나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각종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사는것을 교리로 삼는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교리를 일부 계층들이 저들의 리윤추구와 욕된 사회를 부지하기 위하여 도용하는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때문에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궁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3세계인민들의 슬픔은 더더욱 커가기때문이다.

나는 회고록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그 유명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혁명철학으로 한평생 구현해나가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알게 되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가 얼마나 뜨겁게 페부를 꿰뚫는가 함을 다시금 느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야말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홰불이며 등대라고 할것이다. 하기에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에 매혹되여 그를 무한히 신봉하고있다.

주체사상에는 그 어떤 교리나 선행사상가들도 줄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참사랑이 넘치고있다.

《성주, 우리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수 없을가? 분파의 헤게모니싸움이 없이 말이요.… 》

이것은 회고록에 적혀있는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의 말이다. 나는 그 구절을 되씹으며 이국에서 창밖을 쓸쓸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남조선이나 이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한국인》사회에서 보아온 사대주의와 종파주의자들, 부질없는 정쟁을 일삼는자들의 역겨운 몰골로 하여 심장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탄식을 묵새길수 없었다고 나는 자인한다.

인민이 있는곳이면 어데든지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문제해결의 답변을 그들로부터 구하라, 인민은 혁명가의 절대적인 방조자이며 훌륭한 스승이라는것을 잊지 말라.

이 글을 마치면서 회고록의 우와 같은 구절을 다시 인용한것은 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여생을 천년맞잡이로 살며 통일애국에 몸바치려는 절절한 심정에서이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정녕 모든 해외교포들에게 그러하듯이 나에게도 투쟁과 생활의 거룩한 지침서이다.

재카나다교포 진 송

옥계동유원지



단풍든 옥계동



해주9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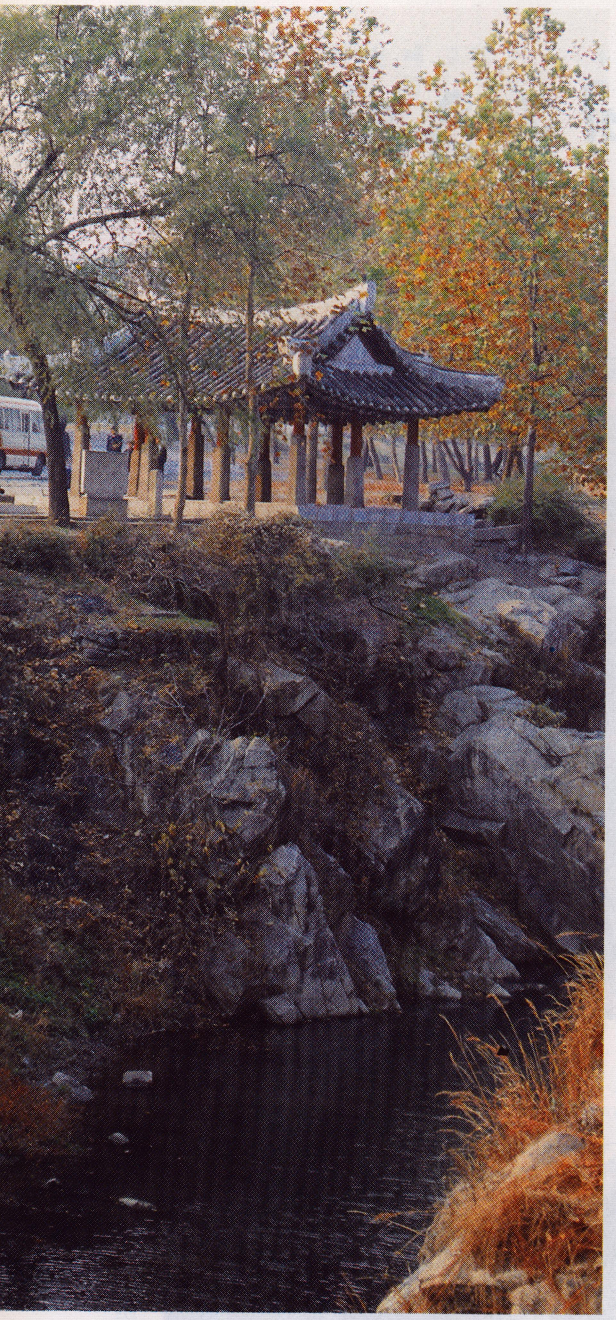


옥계동의 지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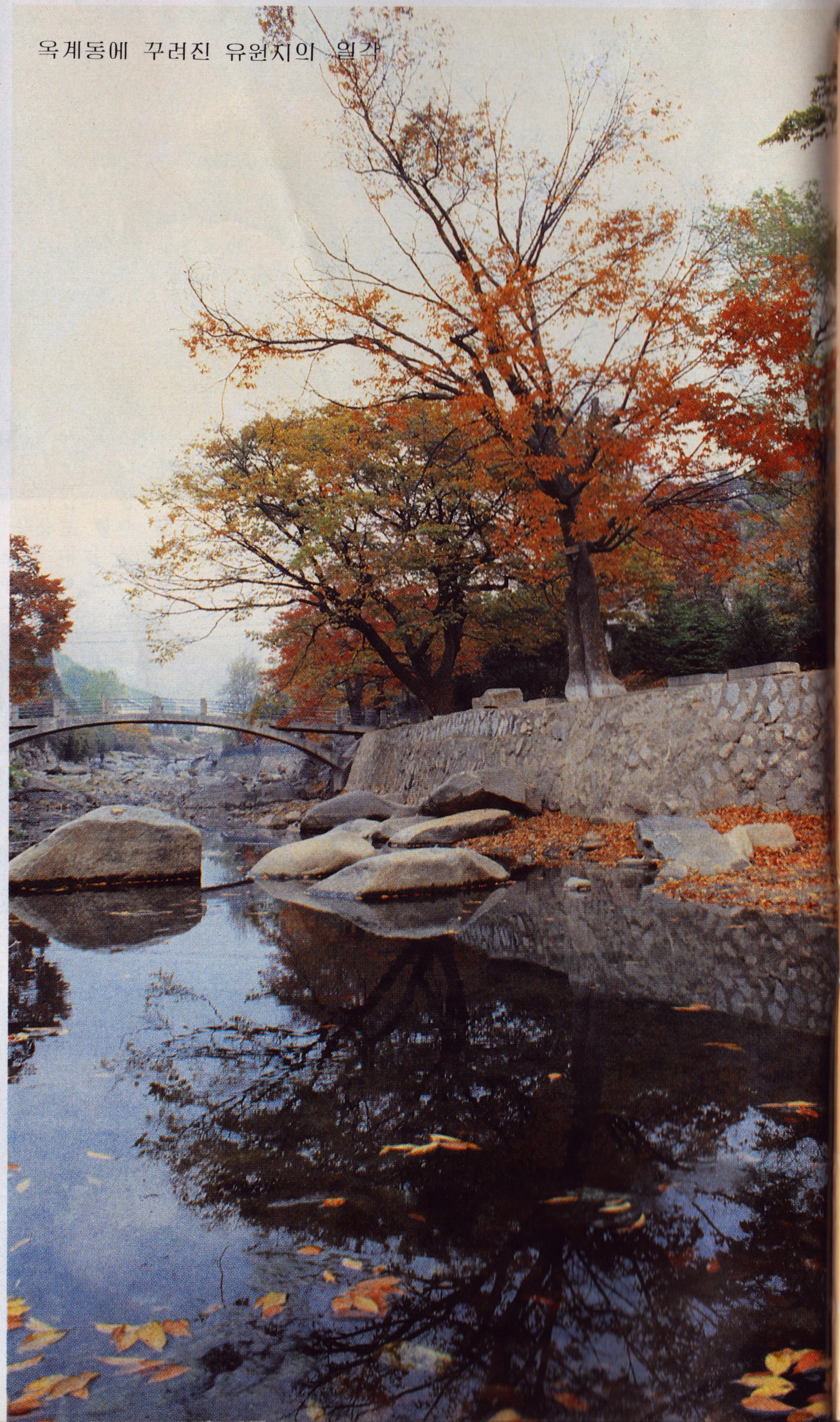
옥계천에 꾸려진 뽀트장



광석천기슭의 사미정







옥계동에 꾸려진 유원지의 일각

황해남도 해주시에는 옥계동유원지가 있다.

수양산에 시원을 두고 해주시 중심부로 흐르는 광석천기슭에 있는 이 유원지에는 경치 아름다운곳이 많다. 돌틈을 지나고 바위를 핥으며 굽이굽이 감돌아흐른다고 하여 광석천이라 불리우는 맑은 내물은 흰바위와 주위의 산경치와 하나로 어울려 뛰여나게 아름다운 풍치를 펼쳐놓았다. 그래서 이곳은 《해주8경》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옥계동유원지는 오늘 해주시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글, 사진 황득범

조국방문



백두산에 올라(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는 총련녀성일군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와 상봉하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대표단 성원들(우)과 범청학련 재중본부 대표단 성원들



고국방문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재중교포들

광복거리를 돌아보는 재로 동포조국관광단 성원들





혈육이 만났다(재중교포 리성옥〈왼쪽〉)

조선기자동맹 제7차 대회에 참가한 총련기자대표단 성원들(앞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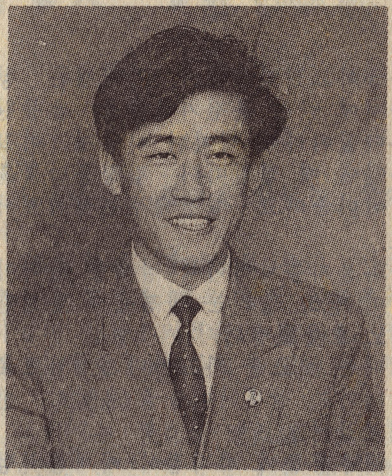
서해갑문을 참관하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대표단 성원들

본사기자 김휘률

인상기묶음

해외동포들은 말한다

청춘을 조국에



우리 범청학련 재중본부는 지난해 2월 15일 력사적인 출범의 닻을 올렸습니다. 애국의 끓는 피로 젊은 심장들을 불태우며 통일조국의 려명을 불러오는 선봉투사가 될것을 맹약하던 뜻깊은 그날이 어제런듯싶은데 어느덧 1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서명운동, 전승 40돐기념축제, 제4차 범민족대회와 제3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등 의의있는 활동들을 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재중동포청년들의 애국열의는 더욱 고조되였으며 범청학련 재중본부는 산하에 20여개의 지부를 두고 각계층의 수많은 동포청년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해외동포청년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이처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청춘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마음의 기둥이 든든하기때문입니다.

저는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영광과 존엄의 상상봉우에 올라설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국을 다녀간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기둥, 이것은 바로 조국입니다.

위대한 조국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안고 참된 애국의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저는 범청학련 재중본부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동포청년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력량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통일조국은 우리 청년들의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이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릴 때 통일의 그날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밝아올것입니다.

범청학련 재중본부 상임의장
류 창 환

충격이 큽니다



평양에 발을 들여놓는순간 저는 여기가 과연 지난 조선전쟁때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바로 그 평양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외에서 고국의 수도가 미군의 폭격으로 집한채 성한것이 없이 혹심하게 파괴된 사실을 기록영화로도 보고 출판물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평양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

저는 현대적으로 일떠선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돌아보면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 웅장화려한 거리들을 건설을 시작해서 단 몇해어간에 완공해치우군하였다고 하니 그 힘이 정말 무섭습니다.

참으로 고국의 인민들이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일을 많이 하였다는것이 느껴집니다. 페허우에서 오늘과 같이 현대적인 평양을 일떠세우느라 고국인민들이 흘린 피와 땀은 얼마나 많았겠으며 수고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의 평양을 보니 우리 겨레는 참으로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후에 남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던 고국을 어찌 오늘과 같은 나라로 보란듯이 일떠세울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전쟁과 같은 력사의 가장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보다 광명한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겨레의 힘을 꺾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령도자의 두리에 남녀로소 할것없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 고국을 넘겨다 볼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통일되여 하나로 뭉친다면 그때에는 더 우리 겨레가 막강한 민족으로 될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앞으로도 고국을 오늘과 같이 계속 힘차게 이끌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3차 재로씨야동포조국관광단
단원 김분녀



근면한 겨레의 모습에서

나는 해외에서 고국의 잡지 《금수강산》을 애독하고있는 독자들중의 한사람입니다.

고국에는 아무런 친척도 혈육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피를 물려준 고국에 꼭 한번 와보고싶어 못견딜지경이였습니다.

고국에 오니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묘향산과 판문점을 참관하고 다시 평양에 오니 평양시에서는 한창 주민들에게 김장용남새를 공급하고있었습니다. 안내원은 평양시에 있는 륜전기재들을 총동원하다싶이하여 해마다 이렇게 며칠동안에 매 집집마다 김장용남새를 실어다준다고 설명해주는것이였어요.

화물자동차마다에 남새를 산더미같이 싣고 달리는 광경은 보기만해도 흐뭇했습니다.

나는 뻐스를 타고가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남새더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배추통들이 하나같이 베개통처럼 실한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남새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우리가 살고있는 고장에서 남새를 심어먹고있지만 고국의 실한 배추통들을 보니 고국의 농민들이 알심있게 부지런히 일하고있다는것이 석연히 알렸습니다.

어찌 남새농사뿐이겠나요. 고국에서는 알곡농사, 과일농사도 잘되였다는데 이것은 고국의 모든 인민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겠어요.

뻐스를 타고 참관을 오갈 때 길옆의 밭들을 살펴보느라면 묵어있는 땅이 없었고 허술하게 건사되는 땅은 한뙈기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한뙈기의 땅이라도 더 잘 가꾸어 더 많은 소출을 내려고 애쓰는 농민들의 모습을 어데 가나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며 땅을 소중히 다루니 고국에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도 식량을 원만히 해결하고있다는것이 응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고국방문의 나날 저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겨레의 모습에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련 하바롭스크변강 비로비쟌시 돔 까자르나야 11번지 김율랴

분단의 장벽을 허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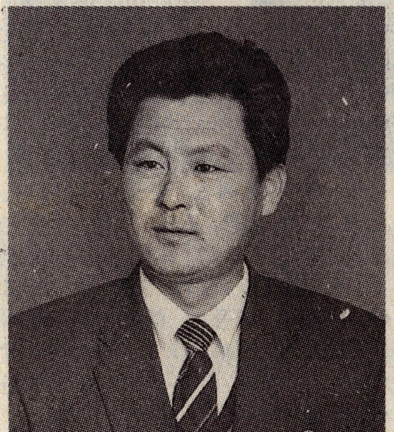
《판문점에 가보지 않고서는 조국을 방문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재중동포청년들은 너나없이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말에 범청학련 재중본부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을 참관하였습니다.

회의장마저 둘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 오만하게 서있는 미군병사, 저멀리 조국의 산과 들을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

이것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과 겨레의 고통이 함축되여있는 판문점의 전경이였습니다. 아마 국경선이라 해도 이보다 더 살벌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판문점참관을 마친후 우리는 개성에서 리산가족들과의 상봉모임도 가지였는데 차마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0여리 떨어져있는 삼촌의 집에 놀러갔다가 분계선이 막히는통에 돌아오지 못한 손자를 수십년세월 애타게 기다리다 눈도 감지 못한채 림종했다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모두의 가슴을 쳤습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반만년을 한강토에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무엇때문에 고대, 중세도 아닌 20세기에 와서 이런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한단말입니까.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조국의 이 가슴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해외의 동포청년들도 조선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조국의 아들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국이 당하는 아픔을 우리의것으로 감수하고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땅히 분단민족의 마지막 세대, 통일조국의 첫 세대가 되여야 합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돌파구를 여는것, 이것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과 힘을 합쳐 90년대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아오고야말것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해남조선족향 손성일

수필

애국에 불타는 사람들

얼마전 나는 이역의 한 녀성동포를 만났었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상공신문》편집장 최설미였다.

그와 나는 초면이지만 동포애의 정과 아울러 같은 녀성이고 동업자라는 점에서 대번에 오랜 지기와도 같이 친숙해졌다.

이역땅에서 필봉을 잡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상대해온 녀성문필가의 체취가 세련된 몸가짐과 침착하면서도 능란한 어조 등 여러 측면에서 그대로 풍기였다.

어느덧 쉰고개를 넘었다면서 그는 30년전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역에서 기자, 언론인의 대렬에 들어서던 때의 일이며 《조선청년》사의 한 청년과 사랑을 맺고 한쌍의 기자부부로 가정을 이룬 사연도 즐거이 추억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잊을수 없는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중에는 오까야마현의 젊은 상공인에 대한 취재담도 있었다.

차점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점방을 운영하고있는 젊은 상공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곧 취재지로 갔었다. 손님들이 붐비는속에 녀기자를 반가이 맞이한 젊은 주인은 시간을 내여 유명한 차점으로 되기까지에 깃든 사연을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그 상공인은 차맛을 잘 내기 위해 손님의 립장에서 차를 계속 마셔 배탈까지 만났던 일이며 수입을 늘이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던 사실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점방의 인기를 부쩍 높이겠다고 하였다.

얼핏 보면 오직 장사에만 여념이 없고 돈을 많이 모으는데 더없는 재미를 붙인 상공인같았다.

하지만 녀기자는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것을 가늠해볼수 있었다.

상공인의 아릿다운 안해는 말했다.

《점방일이 잘될수록 우리 민족교육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는 사업과 사회주의조국을 받드는 길에 더 힘껏 이바지할수 있으니 정말 기뻐요.》

녀기자는 생각을 달렸다.

(한창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고싶은 생각인들 왜 없으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잡은것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지만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어머니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에 대한 생각, 애국의 대에 대한 생각이다.

할진대 우리 동포들의 삶의 보람과 희열은 얼마나 값높고 소중한것인가!)

그는 곧 기사를 완성했다. 취재때 받았던 감흥이 그대로 글줄마다에 넘쳐 기사는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동포들이 사는곳을 찾으면 그 어디에나 감동이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아들에게 조선료리점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한생에 못다한 몫까지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이바지하라는 유언을 남긴 상공인, 제각기 기업을 하는 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도록 이끌어주는 상공인…

생존경쟁이 치렬한 그 복새판에서도 변함없이 애국애족의 길을 걸으며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동포들의 맑고 깨끗한 넋은 그의 필봉에 끊임없는 활력을 주는 원천으로 되였다.

한창 젊었을 때나 중년나이가 되였을 때나 다름없이 그는 일본땅 방방곡곡을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라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찾아내려는 열정으로 가슴불태웠다.

하지만 녀성의 몸으로 가정에서 발목을 붙잡는 일이 생길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언제인가 오이따의 한 상공인에 대한 취재길을 앞에 놓고 애들걱정, 집안걱정에 망설이고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등을 떠밀며 말했다.

《동포상공인들은 자기의 애국심을 바치는데서 주저함이 없는데 잠시 집을 떠나는것이 고심거리로 되니 어디 될말이냐? 동포들앞에 죄가 될라. 어서 떠나거라.》

그러는 때에 남편은 어느새 비행기표까지 사가지고와 손에 쥐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이따의 상공인에 대한 8시간동안의 취재를 한다음 마침내 생동한 기사를 써내여 동포들에게 애국적소행의 주인공을 제때에 알려줄수 있게 되였다.

이역의 실상을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에 심취될수록 나의 마음은 뜨거워만 졌다.

애국적인 동포들과 그들을 애국의 필봉으로 쉬임없이 그려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들인가!

나의 생각은 점점 더 나래를 펴며 중국과 구라파의 여러 나라 그리고 미주에 있는 유명, 무명의 애국적동포들의 모습과 애국애족으로 수놓아진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실어왔다.

헤아려보면 정녕 우리 동포들은 사는곳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한생토록 애국애족의 넋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려순옥



처음보는 졸업식

자매섬은 아침부터 들끓기 시작하였다. 섬마을인민학교 첫 졸업식을 가지게 된것이다.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방당과 교육부문의 책임일군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다. 텔레비죤촬영가들과 사진기를 둘러멘 신문기자들도 뒤따라 나타났다.

졸업식장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여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졸업생이 단 한명뿐이라는것이다.

졸업생은 한명이고 재학생은 두명밖에 없는 자그마한 학교에서 이처럼 성대한 졸업식이 진행되고있었다.

개회가 선포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 합창이 울리고 나어린 두 재학생이 달려나가 졸업생에게 꽃묶음을 안겨주었다.

장내에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뒤이어 녀교원의 보고가 시작되였다.

…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남다른 연혁에 대해 더듬어보게 됩니다.

다 아다싶이 몇해전만 해도 이 섬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대지기 자녀들인 세 어린이는 남포로 건너가서 인민학교에 다니였습니다. 비록 집을 떠나 외지에 나가 살지만 이들은 지방당조직과 인민들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모두 명랑하게 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자매섬의 등대원들은 물론 부모와 헤여져 사는 어린 학생들도 이 일을 당연한것으로 여기고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

이 섬은 본래 자매와도 같이 나란히 솟아있는 두개의 바위로 이루어졌다 하여 예로부터 자매섬이라 불리워왔다. 먼 옛날 악독한 선주놈의 강박에 못이겨 파도사나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구슬피 울던 나어린 자매가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것이다.

이 전설속의 두 어린이와 같이 버림받아오던 섬마을 등대지기들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아이들 공부시킬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된것은 해방후부터였다. 만시름이 풀린 그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도시사람들과 꼭같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고급가구들과 손풍금 등 여러가지 악기들도 보내주시였으며 물에도 마음대로 나들수 있게 발동선을 보내주시였다.

《그러던 1975년 가을이였습니다.》 녀교원의 보고는 계속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등대원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다가 자매섬의 세 어린이들이 남포에 나와서 인민학교에 다닌다는것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실태를 보고드린 일군에게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모두 명랑하게 공부를 잘하고있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래도 어머니의 품만이야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이렇게 이르시였습니다.

〈**자매섬에 학교를 세워줍시다. 나어린 학생들이 집을 떠나 공부하게 해서야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꼭 지어주도록 합시다.**〉

이 뜻밖의 말씀에 일군은 어떻게 대답을 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였습니다.

세명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다니?! 그 세명의 아이들도 이제 한두해만 지나면 다 인민학교과정을 마치게 될것이 아닌가?!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시였습니다.

〈**한해도 좋고 두해도 좋으니 자매섬에 학교를 세워줍시다. 앞으로 한 아이가 남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품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타산만 하면 학교를 지을수 없습니다. 새학년부터 공부할수 있게 인차 학교를 세워줍시다.**〉

이리하여 자매섬에 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교를 세워주신 다음 대학을 졸업한 저를 이곳 교원으로 파견해주시였으며 어린이들의 생활을 늘 관심해주시였습니다.

어느해 2월에는 바다에 떠도는 얼음장때문에 배길이 막혀 새 학기의 교재와 학용품들이 제때에 섬에 와닿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해군함정을 동원하여 한보따리도 되나마나한 그 교재와 학용품들을 실어나르도록 하시였으며 어느해엔가는 겨울방학동안 물에 나갔던 제가 얼음이 풀리지 않아 개학날이 되여도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직승비행기를 보내시여 새 학기 첫 수업에 늦지 않게 래워다주도록 하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속에서 자매섬에서는 한 학생이 인민학교과정을 마치게 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그이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비록 한명의 졸업생이라도 그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수백명 학생들이 졸업하는 큰 학교의 졸업식처럼 성대하게 해주라고 하시면서 지방당일군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을 섬에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섬에서는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 지방당일군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평범한 등대원의 아들인 한명의 인민학교졸업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졸업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

뜻깊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이 교시에는 접촉과 래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리해와 신뢰, 단합을 도모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총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올바른 방도가 밝혀져있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나가자면 민족내부에 리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격페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일부 사람들은 한 피줄을 나눈 같은 동포들을 적으로 오해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민족의 단합을 바라면서도 신뢰가 부족한데로부터 같은 동포들과 손잡고 나가기를 주저하고있다.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면 자유로이 래왕하면서 서로 접촉하여야 하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는것이다.

군사분계선 남측지역 동서 전구간에 구축되여있는 콩크리트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하나의 강토를 두동강낸 최대의 물리적장벽이다. 또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의 접촉과 대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할수 있게 된 반공, 반통일 파쑈악법이다.

국토를 갈라놓고 민족의 뉴대를 차단하는 분단의 콩크리트장벽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장애를 제거함이 없이는 북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를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 사이의 자유래왕과 접촉, 대화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에서 콩크리트장벽이 제거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공, 반통일 악법들이 철페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이 제거되면 자유래왕이 실현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차별없이 자유로이 오가면서 제한없이 접촉하며 활동할수 있는 넓은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온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와 접촉은 당국자들이나 특정한 개별적당파의 독점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전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리익과 관련되고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해결되여야 할 민족의 중대사이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좁은 울타리안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순조롭게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가 남긴 력사적 총화이며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북과의 접촉과 대화에 직접 참여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겨레의 이러한 지향에 맞게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면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주석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접촉과 대화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이 제거되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될 때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획기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참으로 위대한 주석께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천명하신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장을 열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위대한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리정표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운봉

수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모습에서

인류력사에서 20년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기간에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특히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어버이로 모시고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위대한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아름다운 미풍들에 접하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진 참신한 변모를 보게 된다.

며칠전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 나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제4권을 펼쳐들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정독하였지만 읽을수록 그 심오한 세계에 끌려들어가 또다시 읽게 되는것이였다.

회고록의 구절구절을 새기며 읽어가던 나는 어느 한 대목에서 문득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어느 한 부업수산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아름다운 소행을 두고 회고하신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불의의 정황에서 물에 빠진 두 아이를 놓고 자기 딸은 살리지 못하면서도 동지의 딸을 구원한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보통 사람같으면 자기 딸부터 먼저 구원해놓고 련이어 동지의 딸을 구원하려고 강으로 들어갔을것이다. 그가 그런 순서로 구조작업을 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관리위원장은 품에 안았던 동지의 딸을 구원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딸곁으로 헤염쳐갔다. 하지만 그 딸은 벌써 죽은 몸이였다. 마을사람들이 뛰여와서 울며불며 정에 넘치는 위로의 말을 하자 관리위원장은 구원된 동지의 딸을 가리키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 애도 내 딸이요.〉

천박하고 리기적인 인간들의 도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조차 낼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성을 발휘하고서도 그것을 범상한 일로 묻어두며 만민의 평가와 우대 앞에서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수집어하는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매력이 있으며 조선민족이 소유하고있는 미덕이 있다.》

읽을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안겨오는 대목이였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것은 그 사상의식이다. 평시에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위급한 정황에서 동지들을 위해 서슴없이 자기 목숨을 바칠수 없으며 불의의 정황에서 누구나 한 순간에 영웅적행동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주석께서 친히 회고하신 평안북도 운전군 부업수산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정섭.

그도 사회의 평범한 한 일원이며 한 가정아이들의 다정한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정아이들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조직과 집단, 동지들을 사랑하는 성실한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동지의 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위험한 순간에 서슴없이 동지의 딸을 먼저 구원하는 용단을 내리게 된것이였다.

사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고 지어는 자기 눈의 구결막까지 떼여주면서도 그의 소생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얼음구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어린 생명을 구원해주고서도 응당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며 주소성명도 남기지 않고 흔연히 떠나가는 사람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보다 더 달게 여기는것이 인간의 미덕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전반에 구현된 미풍으로 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난것이다.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과 그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나가는 고상한 사상의지,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어버이로 모시고 자식이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따르고 받드는것처럼 깨끗한 량심으로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의리는 두메산골이나 외진섬, 사람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이다.

나서자란 고향과 화려한 도시생활도 마다하고 탄광과 광산, 건설장 등 어렵고 힘든곳으로 청년들은 한해에도 수많이 진출하고있다.

조국이 맡겨준 초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영예군인들을 끝없이 존경하며 그런 사람들과 일생을 같이 하는것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응당한 도리로 여기며 그들의 안해가 된 처녀들도 있으며 홀로 사는 늙은이들을 데려다가 친부모로 모시며 온갖 육친의 정을 다 쏟아붓고있는 사람들도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가진 참다운 인간, 주체형의 새 인간들을 수많이 길러냈다.

회고록을 덮으며 나는 생각하였다.

이것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의 하나라고.

본사기자

아시는지요?

로인들을 위한 생일이름들

예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공대를 잘해온 우리 인민에게는 부모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잘 대접하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전해져오고있다.

그중에서도 생일이 60돐, 70돐, 80돐, 90돐, 100돐이 되는 날에는 특별한 뜻을 담아 축하하였으며 이날들에 따르는 각이한 명칭들도 있다.

생일 60돐은 예로부터 환갑, 회갑, 주갑, 화갑, 환력, 륙순이라고 하면서 크게 잔치를 차려 즐겁게 지내군하였다.

환갑, 회갑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10간 12지로 계산하는 기년법에서 60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에서 유래한것이다.

환갑잔치를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에서 수연이라고도 불렀다.

생일 70돐은 고희, 회수, 칠순이라고 하였다.

그전에는 환갑만 지나면 제 나이는 다 살고 남의 나이로 산다고 할만큼 70살까지 사는 로인은 드물었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생일 70돐을 고희, 회수라고 하였던것이다.

생일 70돐잔치를 드문 축하연이라는 뜻에서 희연이라고 불렀으며 80살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망팔이라고도 하였다.

생일 80돐은 팔순이라고 하였다.

륙순, 칠순, 팔순 하는 말에서 순은 원래 열흘이라는 뜻인데 열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10년을 념두에 두고 쓰기도 하였다.

80돐잔치를 팔순잔치라고도 하였다.

생일 90돐은 졸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한자 졸획의 아래우 글자를 풀어놓으면 한자로 구십이 되는데서 붙은 이름이며 90돐잔치를 졸수연이라고 하였다.

생일 100돐은 백년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백수라고 불렀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생일 60돐부터는 10년을 주기로 로인들의 생일을 축하하여 잔치를 차렸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에서 진갑이라는 말은 생일 61돐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쓰이였다.

그러므로 생일 70돐을 진갑, 80돐을 팔갑, 90돐을 구갑, 100돐을 십갑으로 부르는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가령 십갑을 그대로 풀이하면 60년만에 돌아오는 환갑이 열번 돌아온것이 되므로 60×10으로서 600년 즉 600살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로인들을 위한 생일맞이 이름들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다.

그중 환갑은 륙십갑자에 맞는 말이고 어느 지방에서나 통용되고있으므로 그대로 환갑이라고 부르는것이 좋다.

생일 일흔돐, 여든돐, 아흔돐, 백돐 등을 우리 말로 부르며 생일잔치상도 일흔돐상… 백돐상 등으로 부르는것이 더 잘 어울릴것이다.

수필

리익과 《손실》

얼마전에 수도의 대중체육봉사기지의 하나인 평양체육관으로 나갔던 나는 그곳의 한 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것은 평양체육관을 찾았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참관후에 가끔 이렇게 묻는다는것이였다.

이 체육관운영에서 얻는 리익이 얼마나 되는가고.

하루에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찾아드는 체육관이고 보니 아마도 굉장한 리득을 볼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군이 내놓는 봉사표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대중체육활동에 리용되는 온갖 체육기재들과 물, 전기, 로력 등에 든 자금에 비하면 너무도 헐값인 봉사료금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던것이다.

인민들에게는 리익, 국가에는《손실》, 자본주의사회의 기업생리에 습관된 그들에게는 좀체로 쉽게 리해될수 없는 일이였다.

한 재일동포는 전자오락표를 사가지고 조국에 왔던 기념으로 간직하겠다며 귀중히 간수하였다고 한다.

그 일군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사회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리익이고 〈손실〉인셈이지요.》

우리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돌려지는 사회적혜택, 공화국정부가 실시하고있는 인민적인 시책에 대하여 생각하는 나에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회고록에서 쓰신 다음과 같은 구절이 되새겨졌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포성을 들어보지 못한 자본주의나라의 정객들이 공화국정부의 시책속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력사적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정적계산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고찰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 그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며 거기서 우리 당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다신 그 말씀, 새겨읽을수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돌이켜보면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무료나 다름없는 눅은 값의 식량공급제를 비롯하여 국가부담에 의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지는 살림집들,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제 등 참으로 공화국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인민을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국가의 《손실》은 커지고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리익은 많아지지만 거기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것이 바로 우리 조선로동당이고 우리 공화국이다.

이제는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혜택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남조선의 항간에서는 인민들이 《세금지옥》에서 《세금의 노예》로 《세금폭탄》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고있다. 세금속에 태여나고 세금속에 살아가고 세금속에 죽어가고 세금속에 파묻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사람들이라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사회에서 사회적시책이란 빈말뿐이고 오히려 인민들이 피땀흘려 번돈마저 세금이라는 간판밑에 깡그리 빼앗아가며 지어는 인륜이나 도덕마저도 무시하고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는 혈육끼리도 죽일내기를 하는 비참한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오늘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중심에 놓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 다른 모든것을 희생시키는 무분별한 혼란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증대되고 사회생활은 극도로 기형화되여가고있는것이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복속에 사는 사람이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정녕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사랑의 품이다.

본사기자 김금숙

3대혁명전시관(6)

3대혁명전시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 맨 앞에 있는 은백색 구모양의 우아하고 웅장한 건물을 볼수 있다. 이것이 전자공업관이다.

여기에는 전자자동화공업과 체신부문, 원자력공업부문, 우주개발연구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을 발전시키는것은 기계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을 발전시켜야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1층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전자공업부문 성과전시장은 전자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전반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정에 창설된 전자공업의 발전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기술로 생산한 16비트극소형전자계산기 《진달래》, 우리말문서편집기, 연자기원판과 기억구동장치 등 현대적인 전자설비들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자동설계, 전자출판체계, 자동전화번역체계, 자동텔렉스번역체계…

그 어느 전시품을 보아도 우리 전자공업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전자계산기응용부문의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품들은 전자계산기의 폭넓은 리용이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은을 내고있는가에 대하여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시장의 한쪽에 여러대의 전자계산기들이 나란히 설치되여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피복공장에 도입된 전자계산기에 의한 기업관리의 국부망체계를 보여주는것이다.

이 전자계산기들은 공장의 계획화로부터 생산공정, 자재보장, 로동행정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수자적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해내고 있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인민경제의 전자계산기화가 우리 나라에서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선어뿐아니라 로어, 영어, 일어를 비롯한 8개 언어를 5가지의 언어체로 나타내는 다국어다글체문서편람프로그람을 비롯하여 원거리자동전송체계,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동작도기, 기계번역체계, 날염천문양설계체계와 그 견본품들도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의 전자계산기의 적극적인 리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삼일포》, 립체록음기와 수신기, 전자피아노, 여러가지 전자악기, 광대역고음질증폭기를 비롯하여 전자일용제품전시장에 전시된 제품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자일용제품들이 사람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게 다종다양하게 만들어지고있는 우리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빈터우에서 첫 걸음을 내짚은 청소한 우리의 전자자동화공업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비약을 이룩하였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전자자동화공업의 터전을 닦고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그것은 전자재료성과전시장과 자동화공업부문 성과전시장에서도 그대로 찾아볼수 있다.

금속재료, 반도체재료, 자성재료, 압전자기재료, 초전도재료와 정밀합금재료를 비롯하여 첨단기술분야의 재료인 무정형합금띠 등 전자재료전시품들은 나라의 전자자동화공업의 자립성의 튼튼한 토대에 대하여 잘 말해주는것들이다.

자동화공업부문 성과전시장은 이 땅우에 펼쳐진 자동화시대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보이라, 타빈, 발전기의 운영을 전자계산기화한 210톤보이라의 자동화체계를 비롯하여 공장자동화에 도입한 프로그람조종장치, 식료공장 생산공정의 자동화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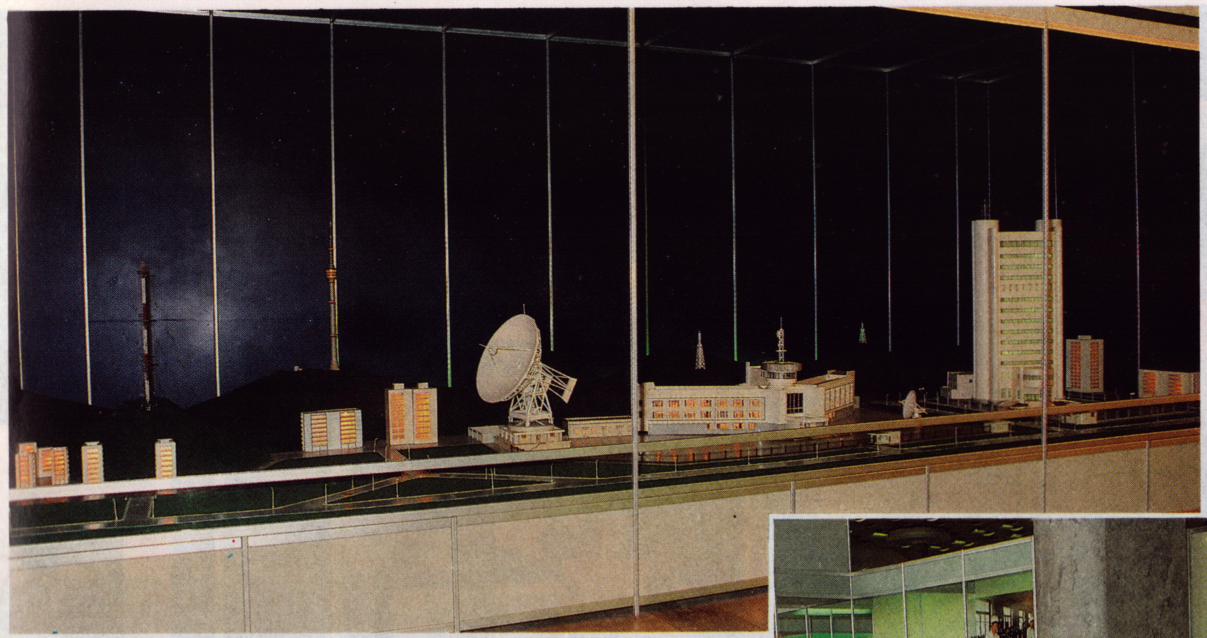
전시장에는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제품선별, 조립, 검사 및 속사작업을 민활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되여있는 지능로보트를 비롯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 실현에 복무하는 각이한 종류의 로보트들이 있다. 특히 지능로보트는 송상카메라와 전자계산기에 의해 모든 영상을 기억하고 그대로 속사하는 재간을 가지고 짧은 시간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모습을 종이우에 방불하게 그려내고있는데 그 솜씨는 화가도 놀랄정도이다.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안제작하여 적극 리용하고있는 다종다양한 로보트들의 작업모습은 어렵고 힘든 일이 영원히 사라질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한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전시장에 진렬된 다른 전시품들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광범한 군중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만들어내놓은것으로써 우리 나라의 레이자기술과 광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체신, 원자력공업, 우주연구 부문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자공업관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온 우리의 전자자동화공업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 앞날에 대하여 확신케 한다.

본사기자



통신부문 전시장 사관



각종 전자관들



광학기구전시장



전자공업관 외경



자동화계기 및 기구 전시장



전자일용품전시장



레이자치료기



전자계산기개발 및 응용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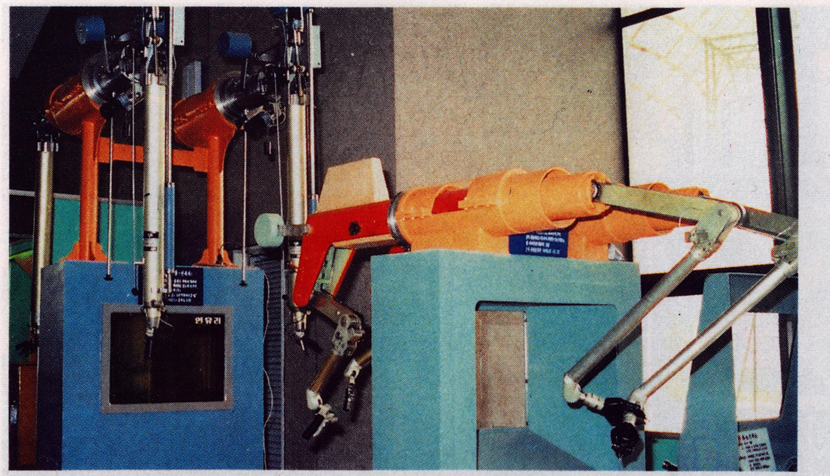
전자재료전시장

전자공업관을 참관하는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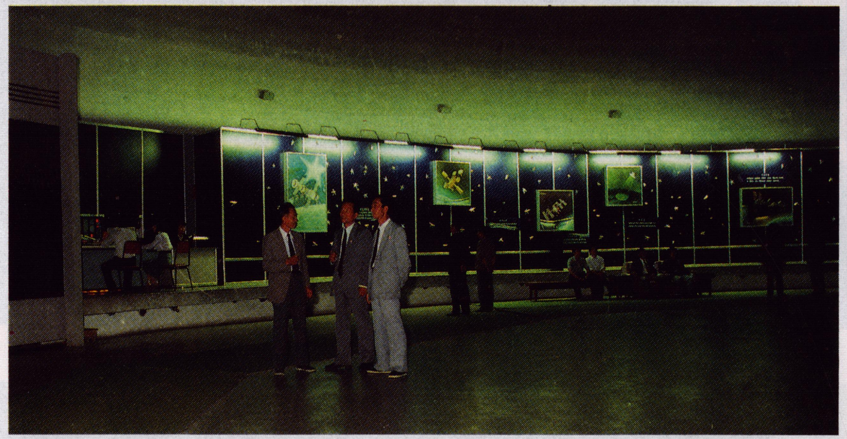
방사선리용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장



중소형로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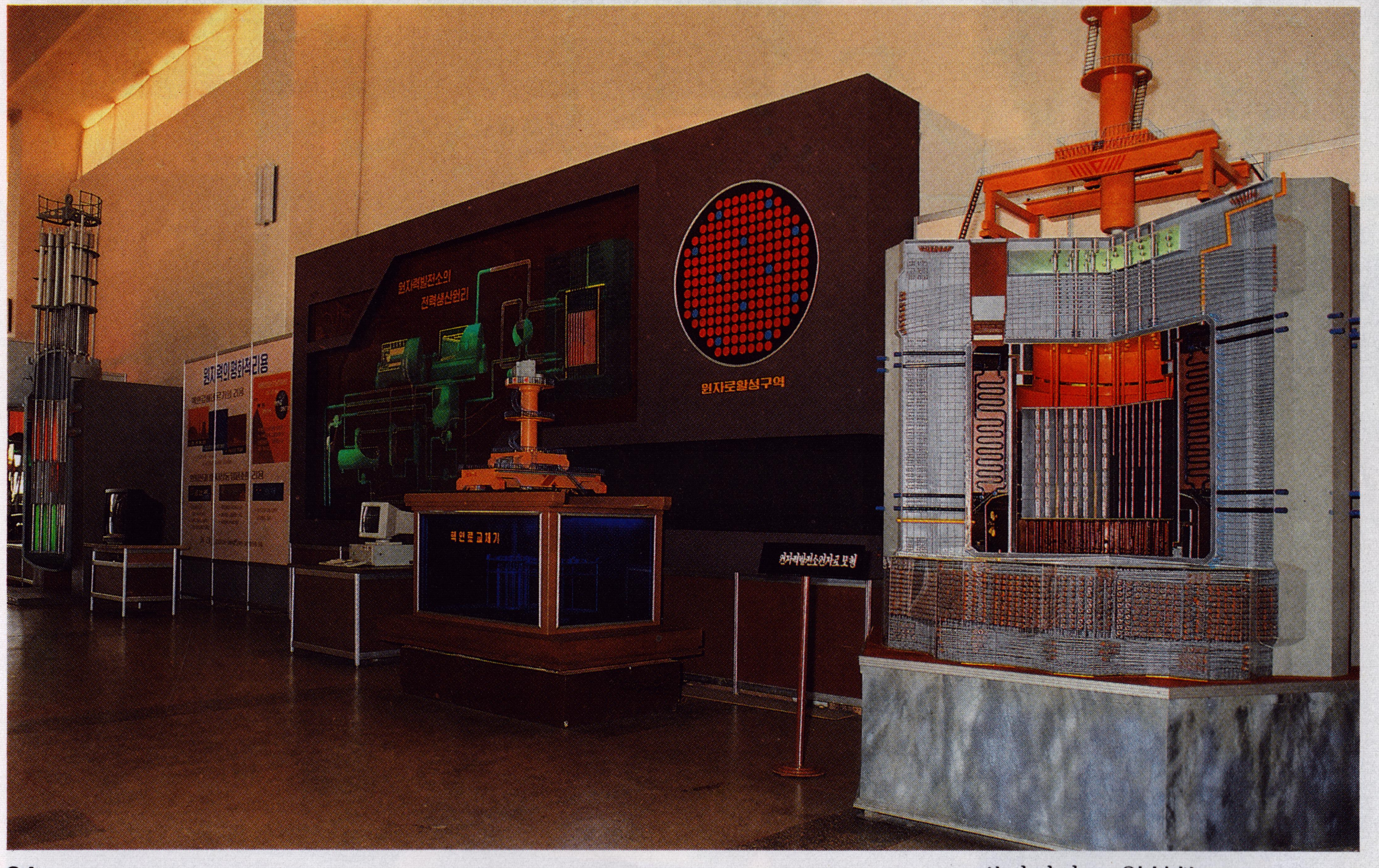


특대형타원반사경



우주지식보급실의 일부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을 보여주는 전시물들



본사기자 안성학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4)

앞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한다는데 대하여 보았다면 이번에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되여온 과정을 이야기하기로 하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닙니다.》

인민대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력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같은것이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은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인류력사의 첫 착취사회인 고대의 노예사회에서 노예라고 불리운 인민대중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그들은 노예주들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여있었고 마음대로 팔고 살수도 있었다. 노예들은 가정을 가질수 없었다. 노예주들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죽일수 있었으며 지어 주인이 죽으면 그와 함께 생매장되기도 하였다. 고조선시기의 무덤인 《강상무덤》에서는 노예주와 함께 매장당한 140여명의 유골이 나왔다. 이것을 가리켜 순장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실례는 고조선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다.

봉건사회에서 농노라고 불리운 농민도 땅에 매인 노예였다. 그들은 봉건령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았다. 봉건사회에는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이 신분제도때문에 아버지가 《상놈》이면 아들과 손자도 《상놈》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녀자들의 처지는 더욱 한심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돈이 없는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은 돈에 매인 황금의 노예이다. 그들은 정치적권리도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없다. 자본가들은 《자유》, 《평등》, 《인권옹호》를 떠들지만 그것은 다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 의회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거의 없다. 자본주의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가기 어렵다. 억만장자들은 화려한 집과 별장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지만 인민들은 집이 없어 한지에서 떨고있으며 굶어죽고있다.

식민지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받는다. 자본주의나라노예상인들이 아프리카흑인들을 짐승처럼 사냥하여 잡아갔거나 학살한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우리 인민들을 노예처럼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조선인민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성마저도 무참히 짓밟혔다.

식민지나라인민들이 걸어온 력사는 실로 수억만 인민들의 피로 얼룩져있다.

착취사회에서 수억만 인민들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지 못하였으며 수난에 찬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면서도 력사의 대상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면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왜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했기때문이다.

고대로마제국에서 스파르타쿠스의 지도밑에 일어난 노예폭동은 처음에는 로마제국군을 격파하면서 승리하였으나 아직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했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실패하였던것이다. 19세기중엽 중국에서 있은 《태평천국》농민폭동도 결국에는 실패하고말았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들은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경험을 쌓고 힘을 키워왔으며 마침내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였던것이다.

그러면 인민대중이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가주권을 틀어쥐여야 한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무권리하고 천대를 받게 되는것은 국가주권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자면 반드시 국가주권을 틀어쥐여야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되자면 또한 국가주권과 함께 생산수단을 틀어쥐여야 한다.

경제를 지배하는것은 생산수단을 가진자이다. 생산수단을 가진자는 로동력을 마음대로 구할수 있고 생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진행하며 생산물을 독차지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쥐지 못하였기때문에 천대를 받게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투쟁해오면서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지 못한것은 자주적요구가 높지 못하였고 창조적힘이 크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다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다는것인데 지난날 인민들은 자주적요구가 높지 못하였고 창조적힘이 크지 못하였다. 이발이 나야 밥을 먹듯이 사회발전의 리치를 몰랐던 노예나 농노들이 어찌 그때에 사회주의제도를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기되였다. 로동계급은 높은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계급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요구를 제기한것은 아니였으나 자본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해 점차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갔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될 때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누구나 무료로 배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과학원 부원장인 부교수, 박사 리영복과 가진 본지 채금옥기자의 인터뷰를 아래에 소개한다.

물음 : 요즘 독자들속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료교육시책에 대하여 많이 물어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온 경위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 저도 조국을 방문한 여러 해외동포들이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의 인사들과 면담을 하는 때면 자주 이런 질문을 받군합니다. 그것은 무료교육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열어주는가, 다시말하여 교육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근본문제의 하나이기때문입니다.

1990년 3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1억명이상의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9억 6천만명이상의 성인들이 문맹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요인들이 작용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전에는 일제의 민족우매화정책과 과중한 학비부담의 강요로 학령아동의 약 50%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수 없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제 이름석자도 쓸줄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학교전1년제의무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

해방후 **김일성**주석께서는 온갖 교육비부담에서 벗어나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켜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베푸시였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단일한 수업료제를 실시하였으며 가난한 집과 학생이 많은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는 면제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부터는 전문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후 1956년과 1958년에 각각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는데 인민학교(4년제)와 초급중학교(3년제)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1959년 3월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수업료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공포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 박사원에 이르는 기간에 누구나 다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물음 :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무료교육의 내역과 그 특성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 《무료교육》이라는 말은 백수십년전부터 씌여왔지만 그에 대한 리해와 해석은 각이하며 무료교육시책도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무료교육이라면 흔히 수업료(혹은 《월사금》)를 면제시키는것으로 리해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입학등록금이나 실험실습비, 견학비, 과외학습비… 등과 같은 《잡부금》은 수학자나 학부형들이 응당 걸머져야 할 부담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료교육》을 한다는 나라들에서도 얼마간의 수업료는 면제시킨다고 하지만 그보다 몇십배나 되는 고률의 잡부금이 학교문에 빗장을 지르고있기때문에 수많은 미취학아동들이 교문밖에서 눈물짓고있으며 중도퇴학생들이 속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데 그 특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수업료》와 온갖 《잡부금》이 오래전에 폐지되였을뿐아니라 전문학교, 대학의 학생들은 《**김일성**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있습니다.


현대과학지식을 습득해가는 대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우리의 국가장학금제는 일부 나라들에서 하고있는것과 같은 대부제이거나 위탁과 계약에 의한 《장학금》제와 전혀 다르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밖에도 학생들의 과외소조활동과 사회정치활동, 혁명전적지와 문화유적지, 명승지의 답사, 공장, 기업소, 문화기관의 견학 그리고 실험실습과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고있으며 각종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들을 국가보상에 따라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공급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철따라 교복과 옷을 내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 무료교육의 혜택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한 어린이가 탁아소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만 9,000여원의 추가적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무료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여서 전면성을 띠고있다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과 성인교육까지 다 포괄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료교육의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대학들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통신대학들에서 일하면서 배우고있는 근로자대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전기간 현직대우를 그대로 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등교수업과 생산실습, 견학과 졸업시험기간을 일체 유급휴가로 보장해주고있으며 그에 필요한 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모든 사회교육도 무료교육입니다. 청소년학생들이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학생도서관들을 무료로 리용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인민대학습당과 인민문화궁전, 청년중앙회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문화교양시설들을 무상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국가부담에 의하여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것은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생동안 받는 교육을 위하여 베푸는 공화국정부의 특전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물음 : 지난날 심히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짧은 력사적기간에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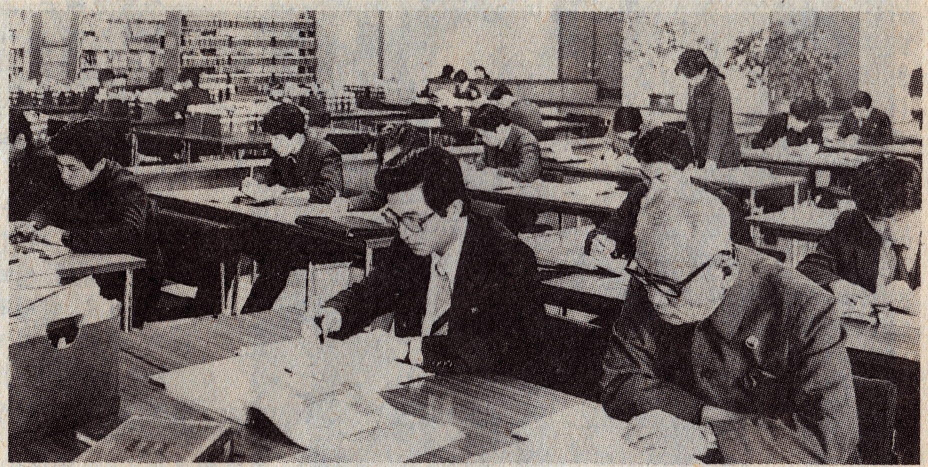
대답 : 무엇보다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 옳은 교육리념을 내세우고 그것을 드팀없이 구현해온데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교육분야에 구현하시여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인간개조사업을 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가 상정된것으로부터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깊은 산골짜기에 대학을 옮겨짓고 전선에서 학생들을 소환하여 공부를 시킨것도 그리고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학교부터 먼저 일떠세우고 전반적의무교육과 무료교육을 련이어 실시한것은 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형편이 좋고 잘살기때문에 할수 있은것은 아니였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사업을 앞세우고 새 세대들을 잘 키우면 나라일이 잘 펴이고 미래도 락관적일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 교육발전에 전국가적, 전사회적 힘을 기울였던것입니다.

전반적무료교육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은데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학교들을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했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있었던것과도 관련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함께 날로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학습하고있는 근로자들

—의거자는 말한다— 《나는 세금없는 나라에서 산다》

나는 남조선의 부산시 동대구 련산7동에서 개인상업에 종사하다가 1992년 2월에 가족과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왔다.

오래전부터 이북이 진실로 민중을 위하는 사회라는 말은 익히 들어온터였으나 부닥친 현실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가장 감동을 받은것들중의 하나는 공화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였다는 사실이였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안내원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단말인가.

나는 아마도 이곳에서는 세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세금납부가 부분적인 성격을 띠고있는것이리라고 내나름의 추측을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이태동안의 생활은 나의 추측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였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은 그동안 단 한푼의 세금도 문적이 없었던것이다. 또 여러곳을 다녀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으나 그중에는 세금을 받는 기관도, 《세무원》도 없었다. 젊은 세대들은 세금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고있었다.

참으로 무심히 대할수 없는 일이였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함께 출현한 국가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의 하나로 세금이라는 재정적공간을 리용해왔다. 력대 착취사회에서 국가권력을 틀어쥔 지배계급은 이 공간을 통하여 저들의 착취를 합리화해왔고 피착취근로대중은 세금납부를 피할수 없는 숙명으로 간주해왔다.

봉건사회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은 온갖 가렴잡세와 잡부금의 수탈로 하여 《세금을 쓰고 태여나 세금을 지고 죽는》 채무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1910년부터 1921년사이에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세금수탈과 2중, 3중의 착취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을 버리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해간 조선사람들의 수가 무려 51만여명이나 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세금제도의 가혹성을 잘 알수 있다.



내가 살던 남조선은 오래전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세금왕국》으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주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80년에 17만 2,100원이였다면 1991년에는 무려 80만원계선을 돌파하였다. 1991년에 남조선주민세대당 들씌워진 세금은 평균 4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월 20만원의 임금을 받는 로동자가 1년내내 벌어도 세금조차 충당할수 없는 엄청난 돈이다.

세금의 종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건물세, 토지세, 도로세,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세…

남조선괴뢰도당은 경찰기구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징세기구를 중앙에서 지방까지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에서는 《죽음과 세금만은 피할수가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오늘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있는데 이것도 많은경우 가혹한 세금제도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것이다.

나는 상업활동때문에 일본에도 자주 건너가군하였는데 이 나라에서도 역시 세금은 근로자들의 명줄을 조이고있었다.

부유하고 발전되였다는 서방의 공업국들에서도 인민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선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짜면 나온다》는 식의 강도적인 론리에 따라 세금수탈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오직 공화국에서만은 벌써 20년전에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였으니 이런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를 철폐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니 김을 잘 맨 논에서 마지막 한대의 돌피까지 뽑아낸것 같다고 감명깊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주석의 로고에 진실로 머리가 숙여진다.

세금철폐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느 누구의 주관적욕망에 따라 실시할수 있는 시책이 아니다.

오직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중중심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이런 세기적인 사변이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공화국의 막강한 경제력, 튼튼한 재정적토대를 과시하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이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진실로 인민적인 시책들이 수많이 실시되고있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에서 살게 된것을 일생의 더없는 행복으로 여긴다.

조원택

변모된 삭주군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밑에 두는 지방행정구역의 말단지도단위, 또는 그 소재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1964년 3월 력사적인 문헌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면서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문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변혁이 이룩되였다.

이러한 전변은 평안북도 삭주군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 ×

《예로부터 삭주란 이름은 압록강 상류쪽에 있는 북쪽 고을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전 삭주땅은 사람 못살 고장이였지요.》

이렇게 허두를 뗀 삭주군당위원회일군은 잠시 지난날을 더듬었다.

해방전 현대 문명과 멀리 떨어진 삭주땅에는 변변한 야장간하나 없어 이고장사람들은 호미 한자루, 성냥 한곽을 사기 위하여 백여리길을 걸어 의주장마당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홑잠뱅이나 토스레옷 한벌을 가지고 번갈아 입었다는 고장이 바로 이 땅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문필봉에 오르니 눈앞에 삭주군소재지의 전경이 펼쳐졌다.

풍치수려한 문필봉을 배경으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진 읍거리는 큰 도시의 거리를 방불케 하였다.

지난날 추녀낮은 단층집들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자리잡고있던 읍거리의 한복판으로는 넓고 시원한 포장도로가 뻗어나갔고 그 량옆으로는 여러가지 문양벽체와 밝은 외장재로 곱게 단장한 다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망들이 줄지어 일떠섰다.

거리의 곳곳에는 아담한 공원들이 꾸려져 사철 인민들의 즐거운 휴식터로 되고있다.

삭주군은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전변을 이룩하였다.

해방전에는 하나의 병원도 중학교도 없었던 이곳에 오늘은 대학과 전문학교,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들이 세워지고 군인민병원과 농촌리인민병원이 곳곳에 일떠섰다.

또한 군문화회관을 통한 문화정서생활이 꽃펴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우리는 문화회관옆에 건설된 다층아빠트의 3층 2호실에 들렸다.

주인과 인사를 나눈 우리는 먼저 집안부터 돌아보았다.

널직한 살림방이며 수도물이 콸콸 나오는 부엌, 목욕탕과 세면장, 창고와 위생실, 그 어느곳을 보아도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기에 편리한 나무랄데 없는 집이였다.

집주인은 얼마전에 중국에서 사는 동생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편지에서 동생은 해방전에 피눈물을 뿌리면서 정든 고향땅을 떠나 이역으로 온데 대하여 쓰면서 지금 자기의 눈앞에는 삭주땅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형님의 모습이 지난날 수풍땜건설에 나갔다가 왜놈감독놈의 채찍에 맞아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과 엇갈려 떠오른다고 쓴 인상적인 대목도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삭주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고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진 삭주직물공장을 찾았다.

전국의 본보기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삭주직물공장은 지난 기간에 비하여 무려 생산능력이 10여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여러가지 직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공장에서는 염색, 열처리 공정도 손색없이 꾸려놓음으로써 비날론혼방직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천들을 많이 생산하고있었다.

합수천 맑은 물이 굽이쳐흐르는 문필봉기슭에 자리잡은 삭주식료공장은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로 단장한 건물들이 탑식, 병풍식으로 10여동이나 특색있게 꾸려졌다.

이 공장에서는 사탕, 과자, 기름을 비롯한 식료품을 무려 80여종이나 생산하고있다.

또한 군에는 맥주공장, 어린이신발공장, 철제일용품공장, 토기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이 있다.

이 공장들에서는 군에서 나는 지방원료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생산을 늘임으로써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군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군에서는 자연부원과 함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군에서는 지난 기간 산과 들에 섬유림, 기름원료림, 종이원료림, 용재림 등을 계획적으로 수천정보나 조성하고 잘 가꾸어 원료와 자재들을 지방산업공장들에 넉넉히 대주고있다.

삭주군의 야산들과 골짜기마다에는 130여정보의 뽕밭이 조성되여 많은 누에고치가 생산되고 100여정보의 포도원에서는 해마다 포도대풍이 이룩되고있다.



가지수를 늘이기 위하여(삭주식료공장)

본사기자 윤대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섬마을의 녀성관리위원장



관리위원장 리묘녀

향토,

누구에게나 애틋한 추억과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잊지 못할곳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나서자란 고향 마을과 산천, 자기의 일터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평안남도 개천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8키로메터 정도 벗어나면 청천강하류가 나지는데 그 가운데에 도화리라는 섬마을이 있다. 이름그대로 아름다운 이 섬에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받들고 고향땅을 락원으로 꾸려가는 한 녀성이 있다.

이름은 리묘녀, 나이는 53살, 25년째 도화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일해오고있다.

다부진 몸매에 활동적인 몸가짐, 소박하면서도 활달한 성미.

우리 나라의 농촌 그 어데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의 모습이다.

사랑과 증오

도화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청천강상류에서 홍수에 밀려내려온 자갈과 모래가 쌓이고쌓여 이루어진 섬이다.

묘녀의 일가는 할아버지때부터 쑥대무성한 이 외진섬에서 부대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왔다.

해방과 함께 꿈같이 찾아온 새 생활은 가난에 쪼들렸던 섬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어제는 모진 빚독촉으로 사람들을 울리던 지주며 구장 따위들이 삼십륙계를 놓더니 오늘은 농민들에게 땅이 무상으로 차례졌다.

묘녀의 아버지 리농걸도 7천평의 토지를 분여받았다.

한창 물오른 버드나무우듬지사이로 달빛이 고즈넉이 비쳐드는 봄날밤, 날 새도록 밭머리에 앉아 넋잃은 사람처럼 흙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5살 난 묘녀의 가슴에 일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새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반동들은 탈곡이 한창이던 어느날 낟가리에 불을 질렀다. 그날 밤늦게야 집에 들어온 농걸은 안해와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땅을 받았다고 기뻐만 했지 그 땅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소.》

이튿날 마을에는 농걸을 대장으로 하는 자위대가 조직되였다. 도화리의 새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마을에 기여든 원쑤들은 농걸을 《악질빨갱이》라고 하면서 12명의 애국농민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어냈다.

《우리를 다 죽여도 이땅만은 뺏지 못한다!》

가슴에 두발의 총탄을 맞고도 거인처럼 서서 웨치는 농걸앞에 원쑤들은 전률했다.

한산한 저녁바람에 목화송이들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밭한가운데 쓰러져있는 농걸의 움켜쥔 두손에는 흙이 들어있었다. 가슴에서 흐르는 더운 피는 석양을 받아 붉게 타는 대지를 더욱 물들이고있었다. …

학교를 졸업한 후 묘녀는 농장원이 되였다.

(선렬들의 넋이 깃들고 아버지의 피가 스민 고향땅을 내 손으로 가꿔가리라!)

묘녀는 이악하게 일했다. 사람들은 정말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묘녀가 농장에서 일한지 5년째 되는 해인 196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농촌문제해결의 원칙과 방향,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을 받아안은 묘녀와 마을사람들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주석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길이 고향마을을 락원으로 꾸리는 길이며 잘 사는 길이였다.

청천강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공사때에도, 수십톤능력의 거름퇴적장건설때에도 묘녀는 사람들의 앞장에 섰다. 한편 그는 짬짬이 농업대학공부도 하였다.

몇해가 지나자 도화협동농장원들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있는 묘녀를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묘녀는 고향사람들의 믿음이 고마왔고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했다.

그가 관리위원장이 된지 두해째인 어느 여름, 련사흘째 퍼붓는 비로 강물이 불어나더니 섬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나라에서 보내준 비행기에 의해 사람들은 구원되였지만 애써 가꾼 곡식들은 반나마 못쓰게 되였다. 자고로 범람하는 강물의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모르니 집들을 섬밖으로 옮겨가자고들 하였다.

묘녀는 안타까왔다. 그리고 분했다.

《어쩌면 이 땅을 뜰 생각을 그렇게 쉽게들 하나요. 우린 이 섬을 떠날수가 없어요. 죽어도 버릴수 없는 우리의 고향이란 말이예요!》

가슴을 치는 관리위원장의 말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였다. 온 마을이 제방보수공사에 달라붙었다.

그러던 어느날 리에 내려왔던 개천시의 한 일군이 가정부인의 몸으로 어려운 섬농사를 맡아 애쓰는 묘녀더러 조건이 좋은 다른 농장에 옮겨가라고 권고하였다. 이때 묘녀는 눈물을 뿌리며 그의 제의를 거절했다. 자기를 위해주는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였다. 소중한 꿈과 아름다운 사랑, 뼈를 깎아내는 아픔과 슬픔이 엇갈려있는 이땅을 묘녀는 한시도 자기의 생활에서 떼여놓고 생각한적이 없었다. 설사 이 세상 모든 재부를 다 안겨준대도 고향땅만은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고향의 딸

원래 도화리는 척박한 모래땅이였다. 해방전까지 이고장에는 논이란 없었고 밭에는 조, 수수, 피 같은 작물만 심었었다.

도화리가 잘 살자면 무엇보다도 벼와 강냉이를 많이 심어야 했다. 묘녀는 대담하게 토질을 변화시킬 결심을 했다.

그는 며칠동안 린근 리들을 다니며 흙원천을 탐문하였다. 나흘만에 10여리 떨어진 외서리에서 풍부한 흙원천을 발견하였다. 수만립방에 달하는 흙을 강건너 섬안에 날라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묘녀는 생각끝에 뜨락또르같은 운반수단들을 여러대씩 싣고 강을 건늘수 있는 수십톤짜리 배를 만들기로 하였다. 개천시의 일군들과 주변 농장들에서도 배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방대한 량의 흙을 섬안으로 날라와 수백정보의 땅에 흙깔이를 하였다. 새로 푼 논에서는 벼가 알알이 여물었다. 사람들은 이제는 도화리에서도 흰쌀밥을 먹게 되였다고 기뻐했지만 묘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도화리에는 수백년전 지층의 변화로 생긴 큰 웅뎅이들이 많았다. 묘녀는 이 웅뎅이들을 메우면 수십정보의 새 땅을 얻을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는 새 땅찾기와 토지정리에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온밤 홰불을 추켜들고 불도젤우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묘녀에게 사람들은 아이들이 기다리겠는데 어서 집에 들어가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묘녀는 땀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 그애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나요. 우리 그애들에게 더 살기 좋고 풍요한 고향땅을 물려주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자기의 힘을 느끼는 때일것이다. 보람찬 로동으로 변모되여가는 산천, 보다 아름다와질 고향의 래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삶의 희열을 한껏 느끼였다.

나라에서는 도화리에 구락부와 학교를 덩실하게 지어주었다. 초가집들이 널려져있던 자리에는 문화주택들이 들어앉았다. 위대한 농촌테제는 이곳 섬마을에서도 실생활로 꽃펴났다. 묘녀는 일할수록 성수가 났다. 사람들은 고향을 꾸려가는 묘녀의 걸싼 일솜씨에 혀를 찼고 도화리가 든든한 주인을 만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했다.

해마다 살림이 늘어나고 풍년이 들수록 묘녀는 한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것은 리의 교통문제였다. 나라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제기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묘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도화리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리하여 이름없는 외진섬에 사랑의 전설이 담긴 《은덕다리》가 생겨나게 되였다. 섬사람들은 주석께서 다리를 건너보시기전에는 그 누구도 다리우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도화리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1977년 4월 11일 몸소 이곳에 찾아오시였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리를 건느시는 주석을 우러르며 묘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어버이수령님! 이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고 향토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수령님이십니다!)

이날 주석께서는 도화리에서 남새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면 리사람들이 더 잘 살수 있다고 하시면서 남새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시고서야 이곳을 떠나시였다.

주석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온 농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수백정보의 남새포전이 꾸려지고 분수식관수체계가 도입되였다. 도화협동농장의 남새농사는 온 나라에 소문이 나게 되였다. 중앙과 지방에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도화협동농장의 경험을 배우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적하던 외진섬마을이 온 나라가 다 아는 고장으로 되였다.

묘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군했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일하면 잘 살게 됩니다.》

이 나날에 묘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났다. 조국은 고향을 끝없이 사랑해온 평범한 녀성에게 인간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향토는 나서자란 산천이여서만 소중한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곳이여서만 사랑하는것도 아니다.

운명도 미래도 오직 그품에서만 시작되고 꽃펴나기에 사람들은 향토를 위해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바로 리묘녀와 같은 수천수만의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한생의 사랑과 땀과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으며 우리의 조국, 우리의 향토를 대를 이어 가꿔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용호



농장원들속에 있는 리묘녀(가운데)

도시소개

남포시(3)

남포시는 우리 나라 서해연안의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이다.

남포시는 오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특색있는 거리들, 다양한 문화후생시설들과 공원, 유원지들이 해안의 경치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로 일떠섰다.

시원하게 트인 대도로량옆으로 고층살림집들과 극장, 편의봉사시설들이 줄비하게 늘어선 유리선거리와 높고낮은 탑식아빠트들이 립체미를 펼쳐보이고있는 와우도거리는 시의 대표적인 거리들이다.

시내에는 남포극장, 와우도려관을 비롯하여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들도 많다.

거리들은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들과 꽃들로 록화되여있어 아름다운 도시의 풍치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시의 곳곳에는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위한 유원지와 공원들도 규모있게 꾸려져있다.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4키로 떨어진곳에 와우도유원지가 있다. 그 모양이 마치 소가 누워있는듯한 이 섬에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들로 뒤덮힌 와우봉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낮은 봉우리들과 절묘한 기암절벽이 있다. 이것들이 대동강기슭의 울창한 소나무림, 망망한 바다와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지난날 쓸모없이 버림받던 와우도를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십정보의 넓이를 가진 대규모의 와우도유원지에는 해수욕장, 뽀트장, 유희장,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오락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남포시의 교육망도 매우 조밀하다.

시에는 남포대학, 순화대학, 삼광대학, 서해대학을 비롯한 17개의 대학이 있다. 이것은 시의 매 구역, 군들에 평균 3개의 대학이 있는것으로 된다.

이밖에도 시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는 공장대학들이 있으며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는 농장대학이 있다.

시에는 또한 농업, 도시건설, 기계, 금속, 전기, 예술 등 여러부문의 전문학교들과 보통교육부문의 각급 학교들이 있으며 서해수산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도 자리잡고있다.

유리선거리에는 독특한 형식의 남포극장이 있다.

1,500석의 관람석을 가진 이 극장에는 각종 창작실, 련습실, 장치실 등이 갖추어져있으며 외부와 내부가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다.

극장에서는 가극들, 음악무용종합 공연들이 다채롭게 진행되여 시내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택지구의 곳곳에는 문화회관, 영화관들도 있다.

시중심부에서 유리선거리를 따라 남서쪽으로 얼마간 나가면 삼화천기슭에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남포체육촌이 나진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몸소 남포시를 찾으시여 삼화천기슭의 간석지벌에 현대적인 체육촌을 건설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체육시설들의 전반적인 배치로부터 개별적인 시설물의 규모와 모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1973년 6월에 체육촌건설이 시작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약 80만평방메터의 큰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체육촌에는 체육관, 경기장, 수영관 등 체육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있다.

경기장의 수용능력은 3만명이다.

체육촌입구에 자리잡고있는 체육관에는 2,500석의 관람석과 36×39메터의 실내운동장 그리고 여러개의 훈련관이 있다. 체육관은 롱구, 배구, 예술체조, 력기, 레스링 등 여러가지 경기들을 할수 있게 꾸려져있으며 선수들과 관람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체육촌에는 이밖에도 각종 야외경기시설들과 훈련장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내경기들은 물론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도 자주 벌어진다.

남포체육촌은 전망적으로 총부지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확장되며 새로운 체육시설들도 더 많이 갖추게 된다.

남포시에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시인민병원을 비롯한 여러개의 인민병원들과 종합진료소들이 구역, 군들과 농촌리들에 배치되여있다.

우산장, 태성호 등 시의 경치 좋은곳들에 근로자들을 위한 정휴양시설들이 마련되여있으며 약수들이 샘솟는곳에는 료양소들이 있다.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나오는 강서약수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시에는 우산장느티나무, 강선뽀뿌라나무, 수산리약밤나무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들이 적지 않다.

시에는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유적유물들도 많다.

대표적인것은 황룡산성과 강서세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등이다.

황룡산성은 고구려시기의 돌성인데 유리한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8개의 봉우리들과 릉선을 따라서 쌓은것이다. 이 성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지키는 서남쪽 관문이였다.

강서세무덤은 7세기중엽에 건설된 고구려의 무덤이다. 무덤은 큰무덤, 중무덤, 작은무덤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무덤안의 네벽에 그려진 4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그림이 유명하다.

약수리벽화무덤은 5세기초의 고구려벽화무덤인데 벽화에서 크게 주목되는것은 행렬그림과 사냥그림이다.

남포시는 날을 따라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근로자들을 위한 와우도주택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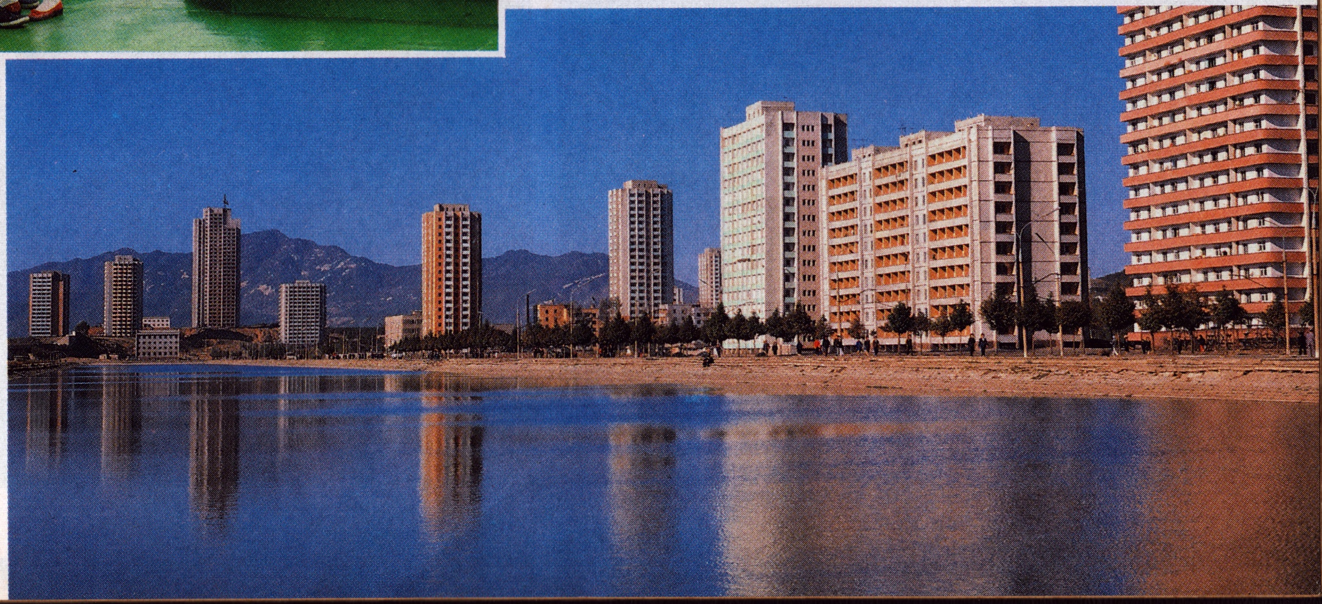
유람선에 올라(와우도유원지에서)





남포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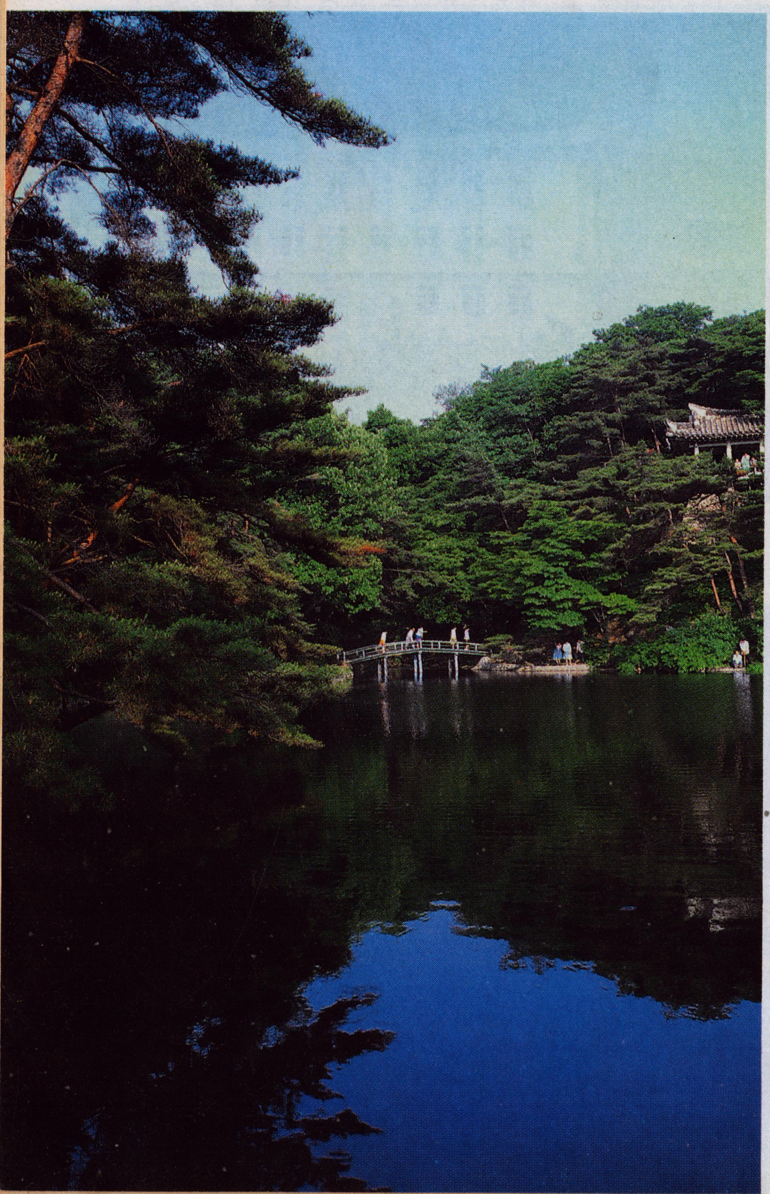
남포체육촌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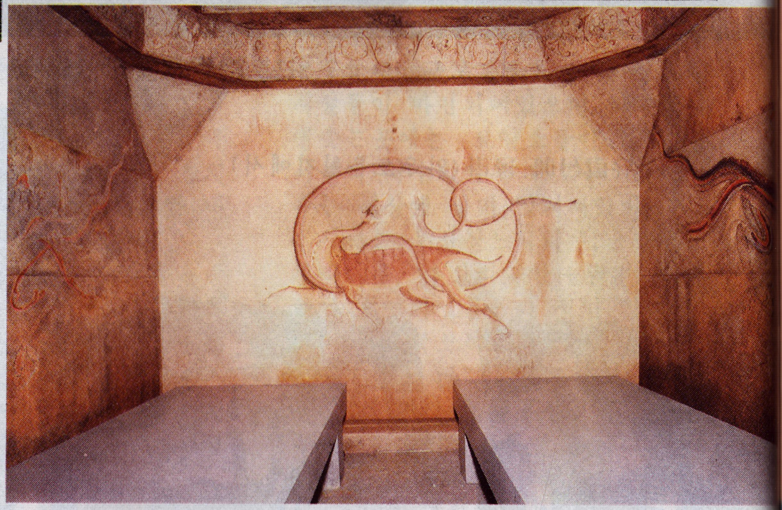


강서세무덤 전경



경치 아름다운 우산장을 찾은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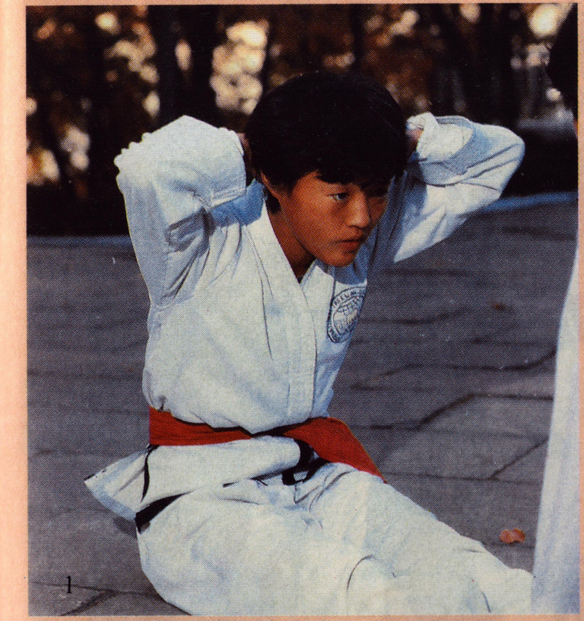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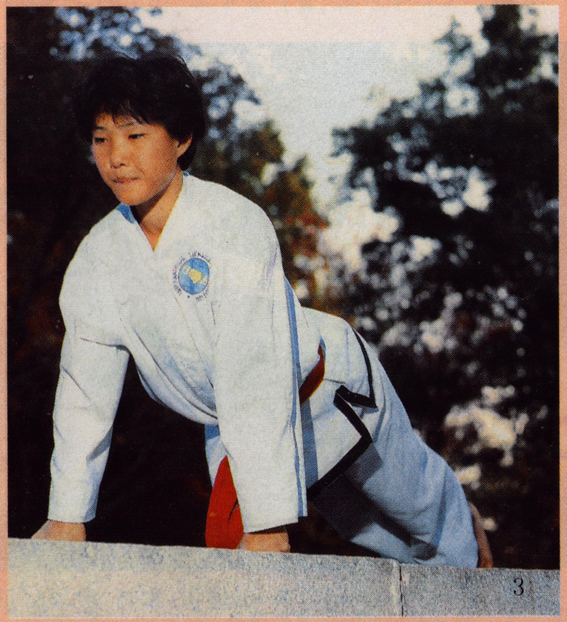
강서큰무덤벽화《현무》



평양골프장

청소년 태권도소조원들









단체틀경기 1등에 기여한

- 전금희
- 송현희
- 최혜영
- 림은희





훈련지도에 여념이 없는 장동서교원





개인특기훈련



사리원시 운하고등
중학교 태권도선수들

본사기자 김종수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민족무술로서 우리 나라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태권도를 통하여 몸을 단련하는것을 정상화, 생활화하고있다.

올해 1월중순 우리는 태권도를 잘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운하고등중학교를 찾았다.

때마침 넓은 운동장에서는 도복을 입은 이 학교 학생들이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없이 태권도훈련을 하고있었다.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태권도소조원들의 맞서기훈련모습이였다.

태권도소조원들이 맞서 뛰고 차고 찌르고 박고 피하는 세련된 동작을 련결하면서 움직이는 목표에 재빠르게 돌입하여 위력한 타격을 가하군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지난해 10월에 평양의 태권도전당에서 있은 전국청소년학생태권도경기대회에서 이학교의 녀자선수들이 단체틀경기와 개인특기에서 각각 1등, 단체특기에서 2등, 개인틀경기에서 3등으로 종합 1등을 하여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았다고 한다.

태권도소조원들의 훈련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학교 장동서체육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들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체계화되여있는만큼 육체기술적준비와 함께 높은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정신력과 결합된 육체기술력, 이것은 꾸준하고 이악한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말을 현실로 증명이나 하듯 우리의 눈앞에 태권도소조원들의 주체틀동작이 펼쳐졌다.

소조원들은 복잡하고 힘든 동작들을 박력이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능란하면서도 맵시나게 수행하였다.

태권도소조원들은 개인특기도 보여주었다.

전국청소년학생태권도경기대회에서 개인특기 1등을 한 김선희학생의 특기는 전문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아주 고급한 동작들이였다.

그가 2.2메터의 높이에 있는 송판을 향해 비호처럼 뛰여오르며 발로 깨는 순간 관중들은 《와!》 하는 환성과 함께 폭풍같은 박수를 보냈다.

우리는 태권도소조원들의 고급한 동작들을 보면서 태권도소조원들을 키우기 위하여 기울여온 장동서체육선생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서도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우리는 태권도소조원들을 따라 경암산훈련장에도 가보았다.

그들은 모둠발로 계단추기, 뛰줄, 나무사이로 재빠르게 몸빼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준비를 튼튼히 다져갔다.

태권도소조원들은 장동서교원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높은 기술동작들을 익히기 위한 훈련도 맹렬히 진행하였다.

앞주먹타격, 손발타격, 앞면차기, 돌려차기, 반대돌려차기 등 힘들고 기술기교를 요구하는 동작들은 참으로 전문선수들의 훈련을 방불케 했다.

훈련장에서 우리를 감동시킨것은 장동서교원의 태권도훈련지도였다.

그는 태권도는 높은 투지와 의지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소조원들에게 반복동작을 엄격히 요구했고 자신이 모범동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리가 훈련장을 떠날 때 태권도소조원 림은희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 8월 평양에서 전국청소년학생태권도경기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대회도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우승컵을 가지기 위한 각 도선수단들사이의 치렬한 경기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1등을 놓치 않을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흘리고있는 땀이 그 결심을 실현시켜줄것입니다.》

본사기자 조광열

알림

《금수강산》 편집부로부터

본사 편집부는 다음호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독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잡지 《금수강산》에 《조선출판물교류협회의 소식》이란 고정란을 설정하고 협회의 소식과 동포들의 활동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정란에는 동포들이 해외에서 조선학교운영경험과 학습조운영, 민족문화와 노래 보급소식을 비롯한 민족의 넋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정형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운동경험, 출판물보급정형, 도서사진전람전시회 소식과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조직을 뭇고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소식, 강연회와 련대성집회소식들, 조국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고있는 동포들의 활동소식 등을 편집하여 소개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고정란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살고있는 동포들의 소식들도 서로 나누게 될것입니다.

동포독자여러분들이 고정란편집에 필요한 흥미있는 소식들을 교류협회앞으로 많이 보내주리라고 믿습니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주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

전화번호 37306
텔렉스번호 37018
확 스 850—2—814632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3)

부주제군상 《대전해방전투》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대전해방을 위한 대포위작전에서 조선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대오의 맨 앞장에 서서 《돌격앞으로!》를 힘차게 웨치며 전사들을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지휘관, 공화국기발을 대전땅에 휘날리려고 앞장서 달려나가는 기수, 패주하는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경기사수와 수류탄을 던지는 전사,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사 등의 형상을 통하여 대전해방전투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기개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무너진 대전형무소의 담벽에 의지하여 력사적인 대포위작전의 전투로정을 수록하는 종군촬영기자의 형상은 전쟁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더욱 부각하여주고있다.

7명의 인물군상으로 된 부주제군상 《대전해방전투》는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부주제군상《대전해방전투》는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두고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게 한다.



《락동강도하전투》

부주제군상《락동강도하전투》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의 마지막시기에 적의 락동강계선방어를 짓부시고 강을 극복한 강행도하전투장면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해준다.

부상당한 머리를 붕대로 감고서도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면서 신심에 넘쳐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중기관총으로 적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는 전사, 달려드는 적기를 경기관총으로 맞받아 쏴갈기는 전사, 총포탄이 우박치는속에 육중한 떼목을 장대기로 한치 또 한치 밀어나가는 전사 등의 형상을 통하여 군상조각은 락동강을 도하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락동강을 도하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용한 모습은 락동강을 건느던 이들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해주고있다.

부주제군상 《락동강도하전투》는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조국해방전쟁사에 가장 치렬한 전투들중의 하나로 아로새겨져있는 락동강도하전투장면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는 부주제군상 《락동강도하전투》는 언제나 그때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한길을 달려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준다.

본사기자



《대전해방전투》

길주 - 명천지구

동해기슭의 변모를 소개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어랑단을 지나 참미역산지 명천에 이르게 되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칠보산의 수려한 산발이 안겨오고 바다에는 해칠보의 절승경개가 펼쳐졌다.

잔파도가 정가롭게 늠실거리며 밀려오는 바다기슭을 떠난 우리는 이고장에서 나서자랐다는 칠보산유원지관리원처녀의 안내를 받아 탐승의 길에 올랐다.

칠보산은 동쪽으로 푸른 물결 설레이는 바다를 한품에 안고 북쪽의 어랑천, 남쪽의 화대천사이에 기암준봉을 이루며 장엄하게 솟아있다.

칠보산은 산등성과 골짜기 그리고 바다기슭에 펼쳐지는 색다른 풍치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누어져있다.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이며 깎아지른듯한 절벽, 그 사이에 펼쳐진 숲, 수정같은 맑은 물, 쏟아지는 폭포, 동해의 푸른 물결이 밀려와 바위에 부딪쳐 흰 물갈기를 날리는 장쾌한 모습 등 참으로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모든 풍경을 한곳에 묶어놓은듯 천하절승을 이루고있었다.

관리원처녀는 맑고 활달한 어조로 길주, 명천 지구는 칠보산으로 하여 자랑이 높을뿐만아니라 유연탄산지로, 목재가공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했다.

명천지구탄전에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고참탄광이다.

이 탄광에서는 북부지구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캐내여 보장하고있다.

새로운 채탄장이 마련되고 채굴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운반의 고속도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석탄생산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길주는 동해안일대에서 새롭게 건설된 군소재지였다.

시내중심을 가르며 뻗어간 큰길좌우로 다층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군문화회관이며 도서관, 학교며 인민병원이 거리형성에 조화롭게 어울리게 자리잡고있어 거리의 미를 더한층 돋구어주었다.

우리와 동행한 군행정경제위원회 문화과 과장의 말에 의하면 길주에는 팔프공장이며 합판공장 등 중앙공업공장들과 함께 1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다고 했다.

길주팔프공장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통나무와 초리나무, 잡관목, 토막나무 등 채벌부산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인견과 종이를 생산한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이 공장은 북부내륙지방의 풍부한 목재자원으로 목재화학반제품을 생산하던 뒤떨어진 팔프공장이였다.

해방후인 1948년 6월에 이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공장에서 종이와 인견팔프를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그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친히 풀어주시였다.

오늘 이 공장은 원료의 선별과 가공, 완성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되였으며 여러가지 종이와 인견팔프를 생산하여 전국에 보내주고있다.

길주팔프공장과 쌍둥이로 되고있는 공장은 길주합판공장이다.

이 공장은 목재종합가공기지로서 합판, 목삭판, 여러가지 장식품류, 이불장과 옷장 등 목재건재와 일용품들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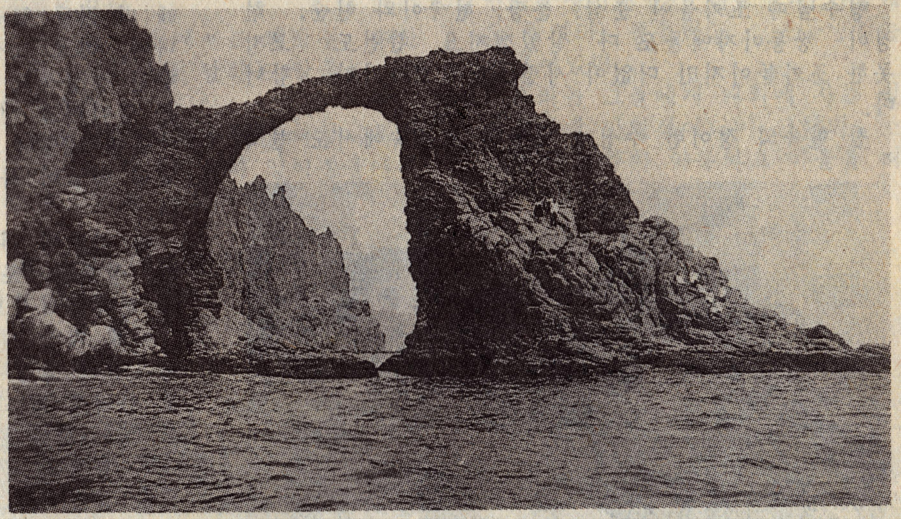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수도 평양에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며 통일거리의 집집마다에 들어가 모양있고 쓸모있는것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길주—명천지구는 명승지로 자랑이 높고 공업지구로 널리 알려져있을뿐아니라 문화휴양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해마다 전국의 여러곳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칠보산휴양소에 찾아와 휴양생활을 하며 황진리온수평에는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큰 온천이 있어 료양생들이 찾아드는곳이다.

우리는 여름철의 칠보산경치를 다시 와보라는 이곳 일군의 인사를 받으며 길주를 떠났다.

본사기자



해칠보의 일부

중국 길림성 교화현 내자산진공사 황하대대 제4대에 계시는 김영숙누님과
흑룡강성 연수현 연안공사 동광대대에 계시는 김래수형님 앞

먼곳에 계시는 누님과 형님에게

사랑하는 누님과 존경하는 형님!

홍안의 애젊은 18살 나이에 누님과 형님의 곁을 떠나 조국으로 온 막냉이 태욱이가 32년만에 이렇게 누님과 형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세월은 속일수 없어 그간 모색도 많이 변했으련만 이 동생의 마음속에 30여년전의 그 모습으로 생생히 남아있는 누님과 형님입니다.

누님은 이 동생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다감하고 자애에 넘치는 누님이였고 《어머니》였지요. 형님은 말이 없고 엄한분이였어도 웅심깊은 형님, 속깊은 《아버지》였습니다.

누님! 형님!

이 동생이 문안의 인사도 한마디없이 이렇게 수십년전 이야기를 꺼낸다고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낳은정보다 키운정이 더 크다고 이역땅에서 철부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애처롭게 울던 저에게 《아버지》가 되여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부어주며 조국으로 가려는 결심도 기꺼이 찬성해주고 수십리길을 따라나서서 바래워주던 누님과 형님의 그 사랑을 제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 나이 오십줄에 들어서고 세아이의 아버지여도 누님과 형님의 품속에서 자라던 그 시절을 지금도 애모쁜 마음으로 자주 추억하고있습니다.

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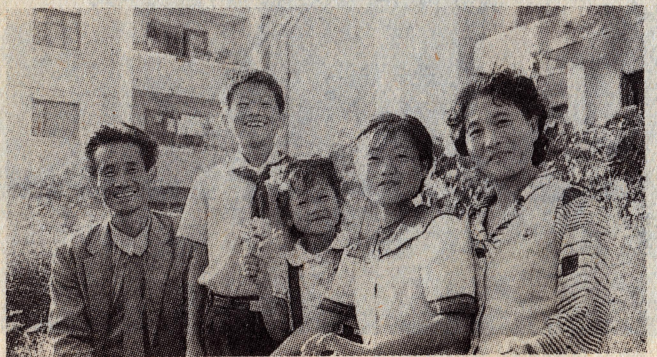
매부님과 그리고 조카들인 룡대, 룡호, 옥란이들도 다 잘있겠지요. 부모없이 불쌍한게 고생한다고 집에 가면 온갖 사랑을 다해주시던 룡대할머니도 정정하신지요.

알몸뚱이로 장난을 치다가 막내외삼촌이 조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달음박질쳐와 《삼촌, 잘가ㅡ》 하고 손을 흔들어주던 룡대의 그 모습, 그 목소리가 지금도 눈에 삼삼, 귀에 쟁쟁합니다.

형님!

형수님과 조카들인 춘삼, 춘광, 현숙이와 현순, 현영이 쌍둥이자매들도 다 잘있겠지요. 한번도 보지 못한 조카들이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워보이기만 합니다.

참 혈육의 정이란 수십년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색



을 모르고 끊을수도, 가를수도 없는 그런것인가 봐요.

저와 우리 가족은 조국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황해북도 사리원제1고등중학교에서 부교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제 안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사리원시 미곡리의 상점에 다니고있으며 맏딸 미란이와 아들 은철이 그리고 막냉이 란이도 중학교들에서 다 공부를 잘하고있습니다.

해방전 나라를 잃고 살길을 찾아 간도땅으로 흘러들어간 수많은 류랑민들속에서 수십여명의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흑룡강성 상지현 하동구 북홍촌 혁신툰에 거처를 잡은곳이 곧 나의 태줄을 묻은곳으로 되였지요. 거기에 형님과 누님이 있고 나의 소꿉시절 동무들이 있었으며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도 비참하게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있었지요.

하지만 나의 가슴속에 보다 깊이 새겨진것은 조국땅이 전쟁의 포연에 잠겼을 때 분연히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성원으로 조국에 나와서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여 가렬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태봉형님의 복수를 위하여 인민군전사로 원쑤들과 싸우고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태중형님의 위훈적인 소식이였습니다.

비록 내가 태여난곳은 아니였어도 이땅은 미제와 싸워이긴 영웅적인 우리 조선사람들이 사는 나의 조국이였습니다. 그 조국을 위해 맏형님은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용단을 내리고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얼마후에는 태기형님까지 사랑하는 약혼녀와 리별하면서도 조국으로 나왔지요.

조국은 저와 태기형님을 따뜻이 품에 안아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며 나라의 훌륭한 일군들로 키워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조국에 대한 고마움에 목메이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자각을 더욱 굳게 하고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국통일을 앞당겨 부모님들의 고향인 경상북도 김천군도 찾아보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에 태중형님의 환갑을 차리려고 하는데 누님과 형님이 꼭 조국에 나와서 참석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나의 송아지동무들이였던 한길용, 김상기, 정호종, 조복동, 김시승 동무들에게도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이제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할 민족분단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모두 얼싸안고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 누님도, 형님도 그리고 저도 있는 힘을 다 해나갑시다.

이 동생은 누님과 형님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면서 펜을 놓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리 28반 2호동 3층 1호 김태욱

대동군을 찾아

평양에서 서해쪽으로 20여키로메터 나가면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읍에 이른다.

옛날 고을 《원》이 쉬여간곳이라고 하여 원장리로 불리웠다는 오늘의 대동읍지구에는 중국 흑룡강성의 보석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송송화의 형 송채홍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에 있는 리호영의 동생 리호남이 살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서자란 소꿉시절의 고향산천을 잊지 못한다. 하물며 해외에서 조국의 고향산천을 그리는 동포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군의 한 일군과 함께 군의 연혁을 들으면서 읍지구를 돌아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이곳 원장리(오늘의 대동군 대동읍)에는 찌그러져가는 270여세대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들어앉은 한적한곳이였다. 여름에는 고삭은 초가지붕우에 박꽃이 하얗게 피여나고 호박꽃에 둘러싸인 키낮은 초가집에서 주민들은 몹시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것마저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온 마을이 재더미로 되고말았다.

원장벌은 기름진 땅이나 해방전에는 정당 논벼는 2톤, 조와 피는 1톤도 내지 못하였는데 그것마저도 소작료를 바치고나면 농민들에게 남은것이란 한숨과 눈물뿐이였다.

이고장에는 기껏해야 정미소, 목공소, 야장간이 있었을뿐이고 주변에 자그마한 탄광과 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제는 이곳의 고열탄과 내화점토를 수많이 강탈해갔다.

평양, 남포, 평성, 증산 등지로 오가는 큰길의 교차점에 위치한 이곳에는 시장이 있어 길손이 많았다. 살길이 막힌 농사군들은 남새, 참외,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들을 시장에 내다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다.

해방후 특히 전후에 이곳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해방후 이곳에 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원장리를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건설할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였는데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그해 어느날에는 원장벌에 오시여 피밥을 먹던 이곳 농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기 위해 밭을 논으로 풀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읍지구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원장천에는 제방이 튼튼히 쌓아지고 그것을 생명수로 하여 100여정보의 밭이 논으로 전환되였으며 모든 논밭들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과업이 빛나게 관철되여 오늘 이곳 농장원들은 모내기로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게 되였다.

축산업이 또한 발전하여 이곳은 모범축산군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축산업이 발전하니 질좋은 거름을 논밭에 많이 내게 되여 땅이 더욱 비옥해졌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해방전 수확고의 5배이상에 달하는 알곡을 수확하였다.

야산마다 백과주렁진 과일나무가 설레이고 저수지들과 양어장들에서는 물고기떼 욱실거린다.

자체의 건재생산기지를 꾸린 대동군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공장과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중앙공업공장과 함께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더 건설되여 1,400여가지의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곳 직물공장에서 생산되는 날염천, 뜨개옷공장의 내의류는 질이 높아 주민들의 평이 좋으며 일부는 수출까지 하고있다.

초가집자리에는 470여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송채홍이 살던 집자리에도 4층아빠트가 건설되여 그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있다. 살림집구획에 맞게 합각지붕의 국수집, 종합상점을 비롯한 사회급양망, 편의봉사망들이 깨끗하게 건설되였다. 원장천기슭에는 동물원과 정각, 뽀트장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되였다.

보통학교와 개인병원 밖에 없던 이곳에 농업전문학교를 비롯한 여러개의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인민병원이 건설되여 학생소년들과 주민들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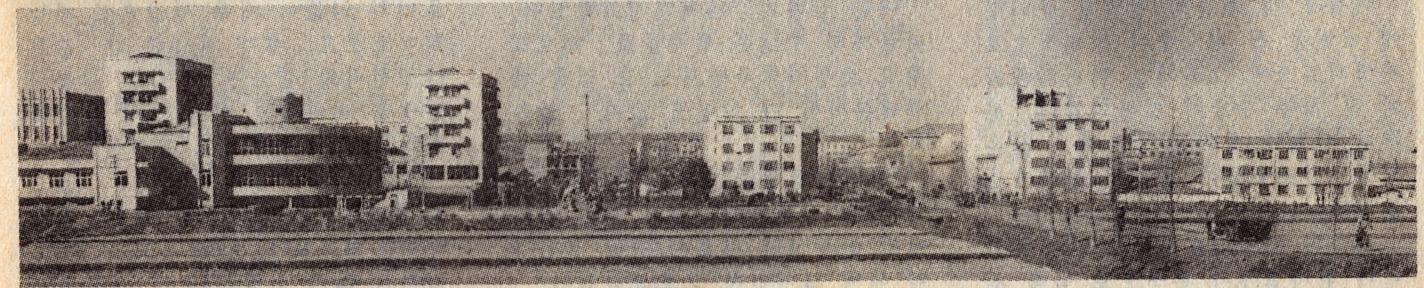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공산주의 미풍이 사회적풍조로 되였다. 지난해에는 이곳에 사는 한 청년이 하반신마비가 된 영예군인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옥동자를 낳았다.

우리는 군병원의사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송채홍과 군인쇄공장지배인인 리호남의 가정에도 들렸다. 풍족하고 웃음넘치는 살림이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해외에 사는 친척들에게 단편적이나마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마 약속하고 마을을 떠났다.

본사기자 로명준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읍의 일부



수기

계산되지 않는 치료비

나는 직업이 의사이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복무하는 의료일군으로서 나는 여태껏 내가 치료해준 환자를 놓고 진찰비나 치료비, 약값 같은것을 계산해본적이 한번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나에게는 그런 버릇이 생겨나게 되였다. 무엇때문인가.

한 중환자를 소생시킨후 나도 모르게 커다란 충격을 받은 까닭이다.

네해전인 1990년 10월중순 어느날 우리 병원에는 작업도중 심한 부상을 입은 한 로동자가 의식을 잃은채 구급차에 실려왔다.

이름은 김종환, 나이는 26살.

환자의 상태는 실로 위급했다. 뇌좌상두개저골절, 좌측전두골골절 및 분쇄, 심한 척추뼈타박…

환자의 생명은 풍전등화마냥 꺼질듯말듯 죽음의 문턱에서 맴돌고 있었다.

의학의 견지에서 보면 그 청년에게는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락심하지 않았다. 아직 환자의 생명이 붙어있는 조건에서 손을 털고 물러설수는 없었기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원장(오상욱)선생의 참가밑에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긴급협의회가 진행되였으며 박사 최일룍선생을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소생치료조가 무어졌다.

협의조로는 외과담당부원장(장창호)외 10명의 과장이, 보장조로는 다섯명의 유능한 의사들이 망라되였다.

이틀후 각 조들의 면밀한 준비밑에 어려운 첫 뇌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의 뇌 및 척추 수술이 진행되였다.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날부터 많은 의사, 간호원들이 침식을 현장으로 옮기였다.

두명의 담당간호원들은 13일동안이나 환자곁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싶이하며 환자를 간호했다.

환자가 일하던 기업소에서도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료들이 수시로 병문안을 왔다.

매일, 매시각 환자의 증세를 면밀히 료해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환자의 몸으로는 코카르복실라, 아트리포스, 프로세미드, 암피실린을 비롯한 고가약재들과 광폭항생제, 뇌부활제, 각종 비타민제, 호르몬제, 혈관확장제, 전해질수액, 각종지혈제, 호흡중추자극제, 영양수액, 우황청심환 등 수많은 값비싼 약들이 투입되였다.

그리하여 환자는 우리 병원에 후송된 때로부터 의식은 216시간만에, 자유롭게 말하면서 의자에 앉는것은 360시간만에, 일어서서 걸어다니는것은 480시간만에, 상실되였던 좌측시력은 근 두달만에 완전히 회복될수 있었다.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무려 258명의 의사, 간호원들이 동원되였다. 그중에서 176명은 치료조, 협의조, 보장조외에 자원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였다.

김종환은 입원한지 150일만에 다시 건강한 몸이 되여 직장으로 나갈수 있게 되였다.

퇴원을 며칠 앞두고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톡톡히 알았습니다. 허지만 한가지만은 꼭 알고싶은것이 있는데요.》

《뭐가 알고싶소?》

《제가 입원해있은기간에 저 한 사람에게 든 치료비와 약값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값?!》

나는 갑자기 난처해지고말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소생시켜주면서도 그 값을 계산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지 않는가.

게다가 평생을 의료일군으로 복무해오는 나자체부터가 우리 나라에서 진찰비나 치료비, 약값 같은것이 대체 얼마인지 모르고있었다.

다른 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반주민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하도 오래 실시되다보니 그런것을 계산하는데 전혀 습관되여있지 않았다.

허지만 김종환청년이 심중하게 문의하는이상 대답은 주어야 했다.

(그렇다! 이 청년뿐만아니라 병원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나는 난생 처음 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수술비, 약값을 계산해보게 되였다. 그런데 의문되는것은 환자에게 투하된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했던것보다는 매우 적은것이였다.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보다는 치료비와 약값이 퍽 낮게 제정되여있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해온 한 의거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도 우리 병원에서 고질적인 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중의 한 사람이였던것이다.

《아니?!… 한명의 환자에게 이렇게 많이 투입되였단말입니까?》

내가 가지고간 종이장을 받아본 그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조선사회에서 병고에 너무도 많이 시달려온 그는 그 사회에서 통하는 진찰비나 수술비, 약값 같은것이 대체로 얼마인지 알고있었다.

그는 내가 제공해준 수자들에 기초하여 자기 식대로 계산해보는것이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계산서를 보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치료비와 약값이 매우 헐값으로 제정되여있군요. 제가 계산한 이 값은 남조선사회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평생을 뼈빠지게 벌어도 다 갚지 못하는 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남조선에서 계산되는 값으로 환산한 이 수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나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한참이나 그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병원입원실에서 김종환청년을 다시 만났다.

《자, 보라구. 대체로 이렇소.》

나는 그에게 내가 계산한 금액계산서와 그 의거자가 계산해낸 금액계산서를 넘겨주었다.

내가 계산한 금액계산서에는 우리 공화국돈으로 다음과 같은 값이 적혀있었다.

① 진찰 1,200회 : 2,250원
② 실험검사 253회 : 616원 50전
③ 대수술 3회 : 2,100원
④ 기능진단 및 물리치료 9종 13회 : 1,315원
⑤ 병원적인 의사협의회 55회 : 174원
⑥ 과 의사협의회 40회 : 1,600원
⑦ 투하된 의약품 62종(그중 포도당, 링게르, 염화카리, 알베진 등 액체약 41.5리터, 전조혈장, 전혈 800미리리터) : 3,077원
⑧ 식사비, 침대비 150일 : 750원

계 11,882원 50전

내가 계산한 수자에는 환자에게 기울인 의사, 간호원들과 주위사람들의 정성의 값은 전혀 계산되여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도출해낼수 없기때문이다.

두장의 종이장을 번갈아들여다보며 수자들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두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는 너무나 천진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이 차례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그 이튿날 그는 우리 병원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병원문을 나섰다.

그는 희열에 넘쳐 씩씩하게 대지를 활보하며 직장으로 돌아갔다.

로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는 여가가 생기면 우리를 못잊어 드문히 병원으로 찾아오군한다.

얼마전에는 장가들어서 본 아들을 품에 안고 안해와 함께 찾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복무한다는 긍지감과 행복감으로 가슴이 후더워진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무상치료제의 혜택과 고마움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된다.

그가 퇴원해간후부터 나에게는 종종 환자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약값을 계산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안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다소나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계산서들에 찍혀지는 수자들은 본인들은 전혀 모르며 또 해당되지도 않는, 오직 국가만이 알고있는 수자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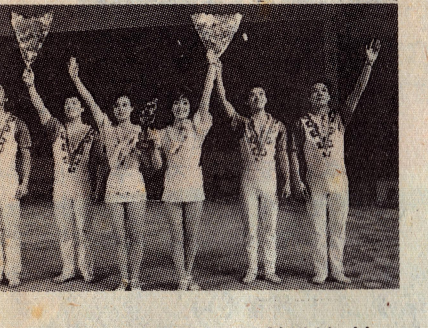
평양의학대학 신경외과 의사,
준박사 강정길

토막소식

△ 우리 나라 국립평양교예단의 교예 《공중널그네비행》이 제4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또한 《공중2인회전조형》은 동상과 특별상을, 요술은 축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헌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축전무대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8개 나라에서 내놓은 40여개의 교예종목들이 올랐다.



△ 국립평양교예단이 독일에서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우리 나라 국립평양교예단은 화란에서의 공연을 성과리에 마치고 지난해 10월 20일 독일의 에르란겐에 도착하여 공연하고 호프, 에르푸르트, 스찬도르프에서도 대성황리에 공연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께도니아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콤뮤니케가 1993년 11월 2일 쓰꼬삐예에서 발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마께도니아공화국 정부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으며 외교대표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 나라 리히봉선수는 오스트랄리아의 멜보른에서 진행된 제65차 세계남자력기선수권대회 64키로그람급경기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리히봉선수는 끌어올리기 142.5키로그람, 추켜올리기 175키로그람, 종합 317.5키로그람을 들어올렸다.

△ 자모식무용표기법으로 100여편의 무용작품을 총보로 발행하고 수십종의 교재, 참고서를 출판하였으며 세계 80여개 나라에 보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용표기법은 그 우월성으로 하여 예술교육사업과 창작실천, 무용작품보존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널리 보급되고있다.

△ 우리 나라 남자롱구팀이 세계롱구선수권대회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세아남자롱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남자롱구팀이 2위를 하여 올해 여름에 카나다의 토론토에서 진행되게 되는 세계롱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였다.



△ 우리 나라 최철수선수가 베이징국제아마츄어권투경기대회 54키로그람급결승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승진국선수는 48키로그람급에서, 리일균선수는 67키로그람급에서, 리광수선수는 71키로그람급에서, 김명남선수는 91키로그람급에서 각각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영웅들에 대한 빛나는 형상

—조선예술영화 《소속없는 부대》를 보고—

작년말에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소속없는 부대》를 성과작으로 만들어내놓았다.

영화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가렬처절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1년 여름 전선서부의 후방에서 있었던 돌고개전투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영화는 후방병원으로 후송되던 최일범중대장을 비롯한 부상병들과 돌고개주변마을사람들, 이곳을 지나던 군인들이 스스로 부대를 조직하고 적항공륙전대와 전투를 벌려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예술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여가던 부상병들이 돌고개부근에서 적간첩을 사로잡는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간첩을 통하여 돌고개주변에 적항공륙전대가 투하된다는것을 알게 된다.

최일범중대장은 항공륙전대를 투하하여 아군전선부대의 배후를 타격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판단하고 사단에 조성된 정황을 알리기 위하여 련락병을 보낸다. 한편 부상병들과 마을사람들, 이곳을 지나가는 군인들을 집결하여 부대가 도착하면 전투를 벌릴 참호도 굴설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을녀인으로부터 련락마차가 적의 폭격에 마사지고 련락병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

적항공륙전대가 투하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사단이 있는곳은 이곳으로부터 100여리가 넘는 정황에서 그들은 부득불 자체의 힘으로 싸울 각오를 다진다.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떠나갔던 군인들과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돌고개로 다시 돌아온다.

조합재산인 돈을 비밀장소에 매몰하고 돌아온 소비조합부기원, 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휴가를 가던 해군정찰병, 당원증을 수여받으러 가던 땅크병, 사단에서 전투기재를 받아가지고오던 공병, 퇴원하는 군인들을 인솔하던 군단병원 군의와 위생병, 면당지도원을 비롯한 마을사람들, 내무원…

다시 모인 사람들은 얼굴을 익히지 못한 소속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보잘것없는 무기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중무장한 수많은 항공륙전대를 무자비하게 쓸어눕히고 승리한다.

첫 전투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한 적들은 또다시 장갑무력을 집결하여 달려든다.

적아간의 력량대비는 너무도 엄청나게 차이났다. 그러나 인민군군인들과 마을사람들은 자기 몸이 그대로 총탄이 되고 폭탄이 되여 원쑤들을 격멸할 결사의 각오를 가진다.

그들은 돌고개의 외통길을 폭파하여 적땅크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영화는 적의 총포탄이 쏟아지는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몽둥이를 들고 적락하산병을 때려잡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소비조합부기원, 습격조를 인솔하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되자 반땅크수류탄을 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적땅크무한궤도밑으로 뛰여들어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는 해군정찰병도 보여준다. 또한 파괴된 적땅크에 들어가 땅크포로 달려드는 적들의 땅크를 보기 좋게 족쳐대는 땅크병, 외통길 폭파를 위하여 적의 불발탄을 날라 매몰하다가 실명당하는 면당지도원, 특히 끊어진 폭파선을 잇기 위하여 달려나간 중대장과 녀군의가 모자라는 폭파선을 서로 손을 맞잡아이음으로써 전투승리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지원부대가 도착한다.

마침내 적들은 일망타진되고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전투가 끝난후 지원부대의 부대장은 돌고개를 지켜싸운 사람들의 부대소속을 묻는다. 이때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소속부대라고 긍지에 넘쳐 대답한다.

영화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할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화는 소속은 다르고 그 누구에게서 받은 명령이나 전투임무는 없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주체적영화창작리론을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연출, 촬영, 음악, 배우연기 등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예술영화《소속없는 부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키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참된 교과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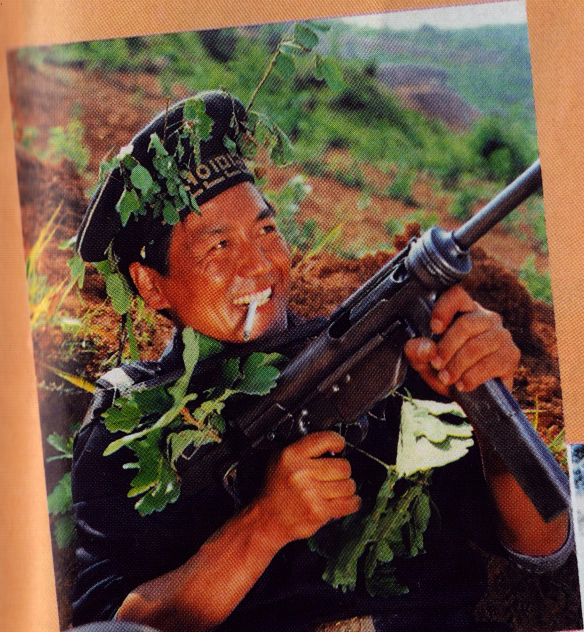
본사기자

부대로 떠나는 녀군의를 바래주는 면당지도원





영화의 주인공인 최일범중대장



영웅 해군정찰병



적들의 기관총을 빼앗아낸 소비조합 부기원



전투를 앞두고 부대를 조직한다

아군의 배후로 달려드는 적항공륙전대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붓는 중대장

적들의 탄약고를 습격하는 습격조원들





부상당한 몸이지만 전투장을 떠나지 않는 면당지도원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대원들은 불발탄을 날라온다





무용 《금강산팔선녀》중에서

사리원청포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자리잡고있는 사리원과수농장은 조선청포도를 비롯하여 여러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산지이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청포도는 알이 크고 단맛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한창 포도가 익어갈 때 청포도송이에서 풍기는 향기는 특이하다.

사리원청포도는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서 당분은 10~30%, 유기산은 0.5~1.4%, 단백은 0.15~0.9% 들어있다.

사리원청포도는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이름난 사리원포도술의 원료로 되고있다.

사리원과수농장에서는 청포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포도밭면적을 늘이고있다.



민족음식

생선매운탕

음식감(한그릇분)

생선(가재미, 숭어, 잉어 등)	400g
두부	120g
파	20g
풋고추(또는 사자고추)	30g
미나리(또는 쑥갓)	20g
마늘	5g
고추장	10g
간장	5g
소금	2g
맛내기	1g
후추가루	0.5g
참기름	2g
닭알	1/2개
깨	1g



만드는 법

① 생선은 비늘을 긁고 내장을 뗴낸 다음 깨끗이 씻어서 살만 통채로 편내여 너비 3cm 되게 가로 저민다.

두부는 길이와 너비가 2.5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고 파는 3cm로 토막낸다. 풋고추는 절반 갈라서 씨를 털어버리고 2.5cm 크기로 썬다. 미나리는 연한것을 뜯어서(또는 3cm 크기로 썰어) 씻어놓는다. 풋고추는 붉은것을 쓴다.

② 남비에 고추장을 국물 0.4ℓ에 풀어서 두고 끓이다가 생선편을 두고 끓이며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여기에 풋고추, 파토막, 두부를 두고 끓이며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 풋고추가 숨죽으면 미나리를 두고 닭알물을 돌려붓는다. 닭알물이 익어서 떠오르면 맛내기, 후추, 다진마늘, 참기름, 깨가루를 쳐서 남비채로 낸다.

더 기대할것이 없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 권력을 쥔 김영삼괴뢰도당은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정책》과 《문민정치》로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널리 광고해왔다.

그리고 한해가 지난 오늘에 와서는 《개혁정책》으로 《문민시대의 정치문화》가 정착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였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시되고있다고 《치적》을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것은 《개혁의지가 탈색》되고 《개혁정책이 실종되였다》는 비난의 소리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조선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이 현 남조선《정권》에 대하여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고 기대할것도 없다고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식민지군사통치가 수십년간 지속되고있는 남조선에서 개혁정치와 문민정치를 하자면 먼저 외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철폐하고 《안기부》, 《기무사》와 같은 폭압기구들을 해체하는 일부터 해야 할것이다. 그자신도 《선거공약》과 《대통령취임식》에서 이러한 문제의 《개혁》에 언급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오늘까지 온 땅덩어리를 개혁광고로 파묻히게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손가락하나 대지 않을뿐아니라 력대의 어느 괴뢰보다도 외세의존에 매여달리고있다.

그는 《안보》를 내대고 년간 30억딸라가 넘는 미군유지비부담을 자진 맡아나서면서 미군을 《전쟁억제력》으로 무한정 붙잡아두려 하고있다. 지어 통일후에도 외세가 조선반도를 지배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를 보고 인민들은 《청와대》에 《문민》간판이 걸렸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개가 들어앉았다고 조소하고있다.

지난해 5월 그는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일떠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10만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로태우《정권》때보다 3배나 더 많은 부상자를 내는 류혈참극을 빚어냈다.

또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는 생존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제 몫만을 요구하는 집단리기주의》, 《한국병중의 한국병》으로 모독하면서 관권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지난해에만도 그는 시위진압기동경찰대를 3만 9,000여명이나 더 증가하고 근 1,600대의 순찰차를 비롯한 폭압장비들을 경찰에 추가배정하였다.

인민들이 그를 《군부파쑈에서 민간파쑈로 변화한 문민파시스트》로 락인하고 그의 타도를 주장한것은 우연치 않다.

김영삼괴뢰도당은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서 북과의 관계를 개선》할것이라고 했으나 《통일정책》에서도 아무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북남합의문건들이 채택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된 때에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최대규모에서 재개하여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 새 《정권》이 나온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념원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았으며 핵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특사교환제안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있지도 않는 《북의 핵개발의혹》에 대하여 떠들면서 선행군부독재시기에도 성사되여오던 당국사이 대화와 민간급대화, 교류를 모조리 단절해버렸으며 화해, 단합을 위해 우리가 내민 선의의 손을 뿌리치고 련일 각종 명칭의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벌리는 것으로 도전해나섰다.

더우기 그는 북의 《핵문제》를 걸고 대국들에 빌붙어 《국제공조체제》를 애걸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일제의 과거 조선침략죄행을 묵인면제해주고 그들과의 결탁을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과 《핵문제》에서 《공동전선》을 하며 핵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데 대한 비밀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김영삼괴뢰도당이 들고나온 《신경제정책》은 로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생존권투쟁을 가로막은것뿐이며 수출의 극심한 부진, 생산감퇴, 대외채무의 증가, 기업의 대량파산 등 경제의 파국적후과를 가져왔을뿐이다. 또한 《신농정》은 경지의 황폐화와 류례없는 흉년을 가져오고 매국적인 쌀시장개방으로 600만농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을뿐이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김영삼괴뢰도당의 《개혁》은 개악으로 되고 《신한국창조》는 《쉰한국》으로 되고 말았다고 야유하고있다.

김영삼괴뢰도당은 순수한 혈통의 문민이 아니다. 야당생활을 할 때에는 외세로부터 돈을 받으며 군부독재《정권》유지에 적극 협력하고 집권욕이 극도에 이르자 군사파쑈정당에 기여드는 정치매춘부가 되였다. 그가 《대통령》감투를 쓸수 있은것도 이들의 뒤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파쑈세력의 포대기에 싸여서 출생한》 사생아인 그가 과거를 청산할리 없고 개혁을 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지적한것처럼 그가 《개혁》을 운운하는것은 《썩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다.

남조선《국회》에서까지 《문민독재타도》의 구호가 터져나오고있다.

본사기자 권오식

평양은 반만년전부터 조선의 수도였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지난해 12호에 사회과학원의 단군릉발굴보고를 전재한바 있다.

그 발굴보고는 지금까지 전설로만 알려졌던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고증하였으며 그와 함께 단군의 도읍지, 고조선의 수도가 바로 평양이였다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단군릉발굴보고에서 주목되는것의 하나는 단군이 평양에서 태여나고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평양에서 죽어서 묻혔다는 사실이다.

단군릉에 대한 발굴결과는 단군과 그가 세운 나라 조선(고조선)의 도읍지, 수도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할수 있게 되였다.

발굴자료를 통해서 뚜렷이 확증된것은 단군이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실재한 력사적인물이였고 평양이 반만년의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첫 고대국가의 수도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여왔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우리는 평양을 우리 나라의 오랜 옛 수도로서 자랑하면서도 그것은 다만 고구려가 427년에 집안(당시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겨온것을 념두에 두고 그때부터 1,500여년의 력사를 가진것으로 보아왔다.

이번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이 확증됨으로써 평양의 력사는 1,500여년이 아니라 5,000년이라는 유구한 력사를 당당하게 자랑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동방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적전통은 바로 수도 평양의 유구한 력사, 번영의 력사와 결부되여왔다.

평양이 단군의 도읍지였고 조선(고조선)의 오랜 수도였다는것은 이번에 진행된 단군릉에 대한 발굴결과가 확증하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왕들의 무덤을 수도부근에 쓰는것은 과거사회로부터 하나의 관례로 되여왔다. 더우기 시조왕의 무덤은 언제나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력대 왕조들의 실례가 잘 말해주고있다. 단군릉의 소재지 강동은 현재뿐아니라 옛날에도 평양에 속한곳이였다. 강동에 단군릉이 있다는 사실은 단군이 평양에서 도읍하고있었으며 평양에서 죽었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강동의 단군릉이 실제적인 단군의 무덤이라는것이 확증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단군의 도읍지가 료동지방이 아니라 응당 단군릉이 자리잡고있는 평양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은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 나라의 수도로 자리잡을만한 고장이다. 단군과 같은 위인은 산수수려한곳에서 태여나는 법이며 국가는 땅이 비옥하여 백성들이 살기 좋고 산세가 좋아 방어에 유리한 지대에 세워진다. 나라안에서도 수도는 그러한 조건이 가장 훌륭하게 갖추어진곳에 자리잡기 마련이다.

평양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있다. 평양은 이름그대로 무연한 준평원지대의 넓고 비옥한 땅에 자리잡고있으며 모란봉을 중심으로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있고 주변에는 대성산, 룡악산, 대보산 등 명산이 솟아있다. 그러므로 평양은 들경치, 강경치, 산경치가 조화롭게 배합되여 예로부터 조선8경과 관서8경의 하나로 꼽히며 평양8경이라 하여 산천경개 아름다운 명승지로 이름이 높았다.

기후풍토 역시 농업생산에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사람살기에 좋으며 군사적으로도 평양일대는 크고작은 산악과 강물로 둘러막혀 방어에도 매우 유리한 지대였다.

단군은 바로 이러한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다 갖춘 평양지방에서 태여나 여기에 도읍하고 첫 민족국가 조선(고조선)을 세웠다.

단군은 나라를 세운 다음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국력을 강화하여 료동반도, 료하 일대를 포함한 북방의 광활한 지대에로 령토를 넓혀나갔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근 3천년동안 존속하면서 멀리 중국의 만리장성계선까지 령역을 확장하고 아세아의 강대한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단군은 평양에서 국가를 세우고 북방으로 진출했다가 자기의 옛 보금자리로 찾아와 건국시조로서의 한생을 마치였다.

옛 문헌기록들은 단군의 도읍지, 고조선의 수도가 여기 평양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에 인용된 《고기》에서는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도읍한곳이 명백히 평양이라는것을 밝히였다.

오늘의 평양이 단군조선당시의 중심지였다는것은 고구려 동천왕때인 기원 247년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고려시기에 편찬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해당 기사에는 동천왕때 백성들과 종묘직을 평양으로 옮기였다는 내용을 수록하면서 그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이 살던곳이다》라는 기록을 덧붙여놓았다.

선인왕검이란 단군왕검 즉 단군조선시조를 가리켜 말한것이다. 거기에 평양을 본래 단군왕검이 살던곳이라고 한것은 바꾸어말하면 단군왕검의 옛 수도라는 뜻으로 된다. 이것은 고조선이 무너진 때부터 천수백년이 지난 시기까지도 조선사람들은 단군의 옛 수도가 평양이였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평양이 단군의 도읍지였다는것을 전하는 문헌기록은 일일이 꼽을수 없을 정도로 많다.

평양이 반만년전부터 조선의 수도로 되였다는것은 인류진화의 발전법칙의 견지에서 보아도 합법칙적이며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인류진화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땅에서 살아왔다.

이미 확증된바와 같이 이땅에서 원인들이 태여난곳이 바로 평양 상원땅 검은모루였다. 우리 조상들은 벌써 100여만년전 원인단계때부터 평양에서 살아왔다.

고인단계의 인류화석 《력포사람》이 나온곳이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리이고 신인단계의 인류화석 《룡곡사람》, 《만달사람》, 《승리산사람》이 발굴된곳은 다름아닌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승호구역 만달리,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이다. 우리 조상들은 고인단계와 신인단계에서도 역시 평양과 그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계통적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평양일대의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피줄을 이어 오늘 우리 민족의 조상을 이룬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진화하였고 여러 세대와 시기를 이어 현대 조선사람에 이르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본토기원의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산천경개 아름다운 평양을 중심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여러 진화단계를 거쳐 살아왔고 마침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인 조선민족으로 형성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조선단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선행시대 이래로 축적되여온 사회력사적요인들을 최대한 리용하면서 청동기시대에 여기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첫 민족국가를 세웠던것이다.

이처럼 평양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고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며 원시조가 도읍한 고장이고 첫 고대국가의 발생지이다.

평양은 단군이 도읍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 근 3,000년가까이 번영했던 고조선의 수도였을뿐아니라 그 후에는 고조선에 뒤이어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등장한 고구려의 수도로 번성하여왔다.

그리고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 역시 평양을 중시하고 숭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천도를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평양은 력대로 우리 나라의 오랜 수도였다.

본사기자 리갑송

사화

권률장군과 선비

임진조국전쟁(1592－1598)때에 있은 일이다.

서울을 지나 북쪽으로 한 30리쯤 가면 양덕산이 한강을 끼고 우뚝 솟아있다.

1593년 2월 권률장군이 양덕산의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왜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산뒤쪽 강뚝을 지키고있던 군사들이 물에 떠내려오는것을 건졌노라고 하면서 붉은 칠을 한 궤짝 두개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그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해서 궁금해하였다.

한동안 무거운 눈길로 궤짝을 보던 권률은 옆에 서있는 선비에게 무엇이 들어있음직한가고 물었다.

《열어보지요. 아마 보배들이 들어있을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나서 권률은 군사들에게 궤짝을 열어보라고 했다.

과연 그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그득 들어있었다.

선비는 권률을 보며 《래일이나 아니면 모레라도 또 궤짝이 내려올것입니다. 그 궤짝은 누구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잘 타일러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권률은 군사들에게 그대로 지시하였다.

다음날 동뚝을 지키던 군사들이 또 궤짝 두개를 건져다가 바쳤다.

그 궤짝은 어제것보다 더 요란스러웠다.

선비는 이윽토록 찬찬히 바라보더니 《든든한 바줄로 궤짝을 동이게 하시지요》 하며 권률을 넘겨다보았다.

굵은 바줄로 칭칭 동여맨 궤짝 두개를 마당 한가운데 놓게 하더니 선비는 이어 섶을 쌓아놓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라고 했다.

궤짝에 불길이 달리자 그속에서는 갑자기 괴상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궤짝이 다 타고 불길이 사그러지자 불무지를 헤치니 해골 두개와 긴 칼 두자루가 나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선비를 돌아보았다.

갖은 방법을 다 써도 행주산성을 함락할수 없게 되자 왜놈들은 우리 장수들을 해치려고 궤짝안에 보물을 넣어 물에 띄워보내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해놓고는 다시 칼을 품은 놈들을 넣어보내는 약은 꾀를 쓰기까지 했던것이다.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선비국에 대한 정벌

고구려의 창건자 고주몽이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태자 유류가 왕위에 오른지 몇해가 지난 기원전 249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이날 유류는 여러 장수들을 궁성으로 불러들인 다음 근심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제장들은 들으라. 나의 부친 동명성왕이 단군의 후예국을 세우신 이래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를 통합하여 우리 고구려의 강성함을 크게 떨치였노라. 그런데 지금은 서북변방의 선비국이 문제로다. 그네들은 우리 고구려와 화친하려 하지 않고 무시로 기회를 엿보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로략질을 일삼고있으니 참을수 없노라. 선비국을 제압할 무슨 계책이 없겠는고?…》

유류왕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선비국으로 말하면 원래 고조선족에 속하는 다른 한갈래의 종족인 선비족이 일떠세운 작은 나라였다. 그런데 선비족은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강력한 대국으로 만들려는 고구려의 립장과는 배치되게 험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에 웅거해있으면서 고구려땅을 자주 침범하였다.

그들은 자기들편에 기회가 유리할 때면 밖으로 나와 로략질을 하다가는 기회가 불리해지면 자기 땅에 들어박혀서 완강하게 저항하군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선비국을 치기 위해 몇번씩이나 군사를 출동시켜보았지만 선비국의 험한 지형조건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고구려를 더욱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겨레통합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먼저 서북변방에서 준동하는 선비국을 정벌하여야만 했다. 그래서 유류왕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의향을 물었던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좀 난감하다는듯 서로 얼굴만 마주 볼뿐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바로 이때 일찌기 동명왕시절에 오이장군과 함께 행인국을 쳐서 고구려에 통합시킨바 있는 명장 부분노가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왕전하! 신의 생각에는 선비족에게 우리 고구려가 약하다는것을 보이는 계책을 써봄이 어떨가하옵니다.》

《우리 고구려가 약하게 보이는 계책?…》

《그렇소이다.》

그러자 부위염이라고 하는 다른 무장이 그 의견을 반대해나섰다. 부위염으로 말하면 동명왕시기에 북옥저를 쳐서 고구려에 귀속시킨바 있는 용맹하고 오랜 장수였다.

《대왕전하!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나이다. 지금까지 주변의 소국들이 우리 고구려에 귀속해온것은 고구려국가의 강대함에 위압된 까닭이 아니겠소이까. 그런즉 오늘날에 와서 강대한 우리 고구려의 존위를 구태여 손상시킬수 없다고 신은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부분노는 자기의 주장을 허물려고 하지 않았다.

《군사에서는 적을 속이는것이 례상사이나이다. 지금같이 선비족이 험한 지세를 믿고 저항해나오는 형편에서 힘으로만 그들을 굽히려 하는것은 무모하게 맥만 뽑을뿐 나라의 존위를 지키는데서도 리로운것이 아닌줄 아나이다.》

두 장수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분노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그대가 깊이 생각해본바가 있는듯한데 그래 우리가 약하게 보인후에 그들을 정벌하자는 지략은 대체 어떤것인고?》

왕의 물음에 부분노는 거침없이 조리있게 대답했다.

《먼저 변방에 군사와 장비를 허수하게 해놓고 동시에 우리 사람을 변장시켜 적들속에 박아넣은 다음 우리가 위세를 부리지만 실속은 없다는 소문을 퍼뜨리는것이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업수이여기고 차차 탕개를 늦출것이 아니옵니까. 그러기를 기다렸다가…》

부분노의 기발한 계책을 다 듣고난 여러 장수들이 수긍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왕도 그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대의 지략대로 하는것이 좋겠노라. 선비국을 정벌하는 일은 부분노 그대가 주관하여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부분노는 자기가 세운 계책대로 선비국을 정벌하기 위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먼저 선비국과 린접한 변방지대에서 대부분의 군사와 장비들을 국내깊이에로 이동시켜놓고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 부분노는 령리한 고구려병사 한사람을 소금장사로 가장시켜 선비국경내로 들여보냈다.

적측지역에 침투한 고구려병사는 《고구려에서는 군사가 부족한데다가 열병까지 돌아서 변방수비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어찌 선비국을 감히 타고앉을수 있겠는가》라는 거짓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한입두입 건너 선비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선비국왕으로서는 매우 귀맛이 당기는 소리였다.

선비국에서는 소문의 정확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고구려변방지대에 렴탐군을 파견하였다. 렴탐군들의 눈에는 소문 그대로였다. 선비국에서는 점차 긴장성을 늦추고 태평스럽게 지냈으며 오히려 기회를 엿보아 고구려땅을 침범할것까지 꾀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부분노는 어느날 깊은 밤에 국내깊이 이동시켰던 정예부대들을 이끌고 깜쪽같이 선비국의 성곽밑으로 접근하였다.

고구려군사들은 성곽아래서 은밀히 매복진을 친 다음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이튿날 아침해가 뜨자 유류왕은 직접 얼마간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선비국에 싸움을 걸었다. 선비국에서는 고구려군사가 적은것을 보고 만만하게 여기면서 반격에로 나왔다.

유류왕은 그들과 조금 접전해보다가 못견디는척하면서 한걸음두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선비국군사들은 승이 나서 일제히 성문을 열고나와 고구려군에게 달려들었다.

유류왕은 거듭 거짓패하면서 선비국군을 뒤에 달고 멀리로 달아났다.

부분노는 왕이 선비국군주력을 끌고 멀찌감치 퇴각해가자 매복해있는 고구려군사들에게 령을 내렸다.

《성을 공격하라!》

그러자 때를 기다리고있던 고구려군사들은 열려진 성문으로 질풍같이 공격해들어갔다.

성안에 남아있던 약간의 선비국군사들은 예상치 않게 코앞에서 불쑥 나타나 청천벽력처럼 들이닥치는 고구려군사들의 세찬 기상앞에서 그만 넋을 잃고말았다.

부분노가 지휘하는 고구려군주력은 거의 비다싶이한 성을 단숨에 함락시켜버렸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밖의 선비국군사들은 급히 유류왕에 대한 추격을 멈추고 성을 도로 차지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뒤였다. 번개같이 성을 탈취한 고구려군사들이 기세충천하여 맞받아 진격해나왔으며 뒤에서는 유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부대가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어찌해볼사이도없이 선비국군사들은 앞뒤에서 협공하는 고구려군사들의 포위에 빠져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말았다.

더 반항했댔자 부질없는짓임을 깨닫게 된 나머지 선비국군사들은 마침내 칼과 창을 버리고 고구려군에 투항하였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경적필패》(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계책에 의해 패하였던것이다.

젊은 유류왕은 부분노를 비롯한 고구려군사들의 호위속에 위풍당당히 선비국수도성에 입성하였다.

선비국은 결국 고구려강토의 한 부분으로 귀속되게 되였다.

수도로 돌아온 유류왕은 이 승전을 경축하여 궁궐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왕은 친히 부분노의 술잔에 향기로운 술을 부어주며 선비국을 정벌하는데서 그가 세운 공로를 높이 치하하였다.

《부분노! 그대는 우리 고구려의 자랑이로다!》

《황공하옵니다! 신은 다만 동명성왕님의 뜻을 따랐을뿐이옵니다.》

《그래서 그대는 우리 고구려의 남아가 아니겠느뇨.》

유류왕은 부분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거듭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분노는 어지간히 얼근해지자 문득 자기의 계책을 반대해나서던 부위염을 한번 골려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보게! 그래 지금에 와서도 나의 계책이 마음에 안든다는건가? 설마 그렇지야 않겠지?》

부위염은 은근히 약이 올랐으나 그렇다고 부분노앞에서 두손을 들고싶지 않았다.

《안드네! 안들어. 난 절대루 적에게 약하게 보이질 않겠네.》

《그건 어째서?》

《어째서라니? 그러다가 선비국처럼 망하면 어쩔려구?》

《엉?》

《하하하…》

두 장수를 재미있게 지켜보던 여러 무장들이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부위염은 자기의 자존심을 고집하던중 저도 모르게 부분노의 지략에 공감하고말았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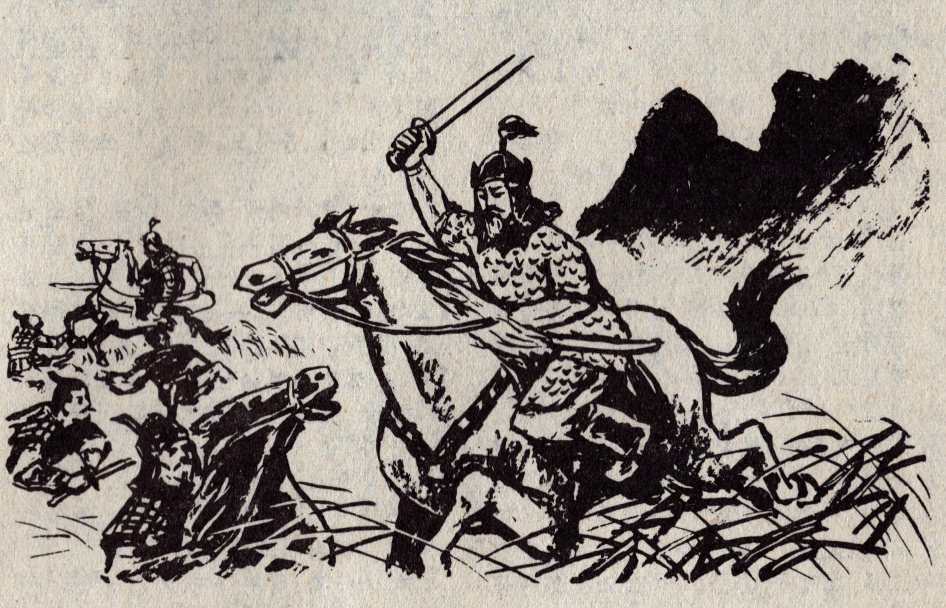
《에끼! 이사람. 허지만 다음번엔 어디 두고보세.》

《좋네! 두고보세.》

부분노는 부위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껄껄 웃었다.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 아직도 왕년의 패기와 기백이 그대로 쟁쟁한 두 장군이였던것이다.

부분노와 부위염은 그후에도 고구려의 위업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력사학박사 전준현



력사의 오물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전호에서 계속)

간첩—허웅배

아마 선생들은 알마아따에서 발행되던 신문《레닌기치》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계실것이다.

오랜 력사를 가진 조선말신문인《레닌기치》에 대한 우리 교포들의 사랑은 각별하였고 기대 또한 자못 컸다.

그런데 이 신문은 1991년부터 돌연히 제호를《고려일보》로 바꾸었으며 그 편집내용도 편향보도와 동족을 헐뜯는 모략비방기사로 일관되기 시작하였다. 그 리면을 헤쳐보면 다음과 같다.

쏘련의 붕괴와 더불어 헤여날수 없는 재정난에 처한 《레닌기치》신문사에 남조선당국의 마수가 뻗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 신문사에《지원》을 주는 대가로 신문사 요직에 자기들이 추천하는 하수인들을 앉힐것, 북조선을 비방중상하는 모략기사들을 우선적으로 편집할것 등의 부대조건을 강박하였던것이다.

그러면 독자대중의 인기를 모으던 자랑스러운 과거를 하루아침에 내던진《고려일보》의 발행인자리에 들어앉은 허웅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다.

조선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허웅배를 쏘련으로 류학보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어려운 시기에 조국이 허웅배에게 베푼 특별혜택이였다.

만일 허웅배에게 인간의 량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부를 마치고 전후복구건설의 시련을 겪고있는 조국에 돌아가 자기가 입은 은혜에 있는 힘껏 보답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1957년에 조국을 배반하고 모스크바에서 도망쳐 숨어버렸다.

그때부터 허웅배는 정황에 따라 몸색갈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쏘련이 자기의《조국》이라고 광고하고 다녔다. 그는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쏘련공민권을 얻었고 쏘련공산당에도 들었다.

그러나 배반이 체질화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림은》이라는 가명으로 자기의 두번째《조국》인 쏘련의 리익을 엄중히 해치는 모략문서를 만들어 일본에 내돌리였다. 이때문에 그는 쏘련공산당에서 쫓겨났다.

허웅배의《눈부신 배반》은 남조선정탐기관의 응당한 주목을 끌었다. 남조선정탐기관은 1970년대에 그를 첩자로 흡수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북조선을 반대하는 정보모략활동에 체계적으로 리용하였다.

《조선일보》(1989. 9. 28)를 비롯한 남조선신문들은 허웅배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모스크바의 드문 조선인실력자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남한의 정치, 경제인들의 〈북방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이미 10년전부터 모스크바에서 허웅배의 도움을 받은 한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 기사들은 허웅배가 남조선정탐기관의 첩자라는것을 명백히 고발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으로 말하면 쏘련과 남조선사이에는《국교》관계는커녕 합법적인 련계나 접촉도 일체 없던 시기이며 남조선에는 공산계렬의 나라나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편지와 물품을 주고받는것을 엄중히 범죄시하고 처형하는《국가보안법》이 몹시도 독을 쓰고있던 때이다.

그런데 그때에 적지 않은 남조선사람들이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에 있는 허웅배를 만나《도움》을 받고도 털끝하나 다치지 않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허웅배가 무엇때문에《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는가?

허웅배가 간첩이라는것은 그가 물쓰듯하는 자금의 출처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허웅배가 알마아따에 뻔질나게 드나드는것이《고려일보》의 발행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주재하고있는 남조선공관에서 공작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라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알마아따주재 남조선공관에서는 책임자밑에 있는 《안기부》요원만이 허웅배와 접촉하며 공작금도 그가 직접 주고있다.

이에 대해 공관책임자는 불만이 많으나《안기부》의 일이라 감히 어쩌지는 못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러 출판물자료에 의하면 허웅배는 쏘련과 남조선사이에 아무런 공식관계도 없던 1988년 이전에도 남조선을 비밀리에 여러번 드나들었다고 밝히고있는데 이 사실 역시 그가 남조선의 간첩이라는 숨길수 없는 증거의 하나이다.

허웅배는 자신의 너절한 정체를 숨겨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지어 그는 구조선말기의 애국렬사 왕산 허위(1885—1907)가 자기의 할아버지라는 말까지 내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것이 확인되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말았다.

허웅배의 악취풍기는 인생행로는 나라와 민족을 등진자들이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를 매우 교훈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인간추물—유성철

신문《고려일보》와 남조선의 어용출판물들에는 최근에 와서 유성철의 이름으로 된 글들이 자주 나타나고있다.

유성철을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조소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한것은 유성철 그자체가 글을 쓸 위인이 못되는데다가 그의 이름으로 나간 글에 실린 사실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이다.

유성철은 본시 글을 써본적이 없으며 뇌혈전 등의 병으로 머리아픔과 어지럼증, 청각장애, 기억력상실과 건망증, 졸기와 같은 증상들이 항시적으로 나타나는 산 송장에 불과하다. 실지로 그는 보청기를 끼고도 제대로 듣지 못하며 손님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다가도 잠에 곯아떨어지며 어제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육체적마비상태에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40~50년전의 일들도 상세하게 세부묘사까지 해내는《문필가》로 등장하게 되였는가.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유성철은 1990년 가을에 남조선으로 가 2만딸라의 돈을 받아먹고《이전 조선인민군의 요직에 있었던 유성철》이라는 이름을 팔아먹었다.

이때부터 남조선당국의 지시하에 어용문필가들은 유성철의 이름으로 수다한 허위모략기사들을 무더기로 써내게 되였던것이다. 유성철의 이름으로 씌워진 모략기사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들이 서로 엇갈리는것은 바로 어용문필가들이 제나름대로 편리하게끔 사실들을 날조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세상에 정의와 량심, 귀중한 모든것을 팔아먹다 못해 몇푼안되는 돈에 자기 이름 석자까지 팔아먹은 인간은 흔치 않을것이다.

유성철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체모를 상실한자이다.

유성철은 1945년에 조선에서 16살의 어린 처녀 최경순을 유혹하여 첫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직권을 람용하여 주변의 녀성들을 희롱하고 노리개로 삼는 타락한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다.

조선전쟁시기에도 유성철은 너새잡이를 계속하여 자기의 간호원과 녀서기를 임신시켰으며 지어 자기 운전수의 처를 강간하는 짐승같은 행위까지 저질렀다. 때문에 유성철의 집에서는 가정불화가 그치는 날이 없었다.

그러던 1952년 2월 어느날 군부대에 나갔던 유성철은 거기서 지금의 처 김룡옥과 알게 되여 치정관계를 맺었으며 그때부터 본처를 더욱 박해하고《없어지라》고 공공연히 강박하군하였다.

남편의 학대에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본처 최경순은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말았다.

살인마 유성철은 거기서 죄책을 느낄 대신에 본처가 죽자마자 김룡옥을 집에 끌어들였다.

김룡옥은 그때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고 동서생활까지 하던 녀자였다.

이런 너절한 인간추물들이였기에 유성철부부는 돈에 유혹되여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던것이다.

1990년 여름 우리 지역의 로병위원회대표단이 30여년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였을 때 유성철부부도 따라나섰다.

이때 남조선당국은 간첩 허웅배에게 유성철을 꾀여내여 서울로 보내라는 지령을 주었다.

자기를 찾아온 허웅배의 손에서 돈뭉치를 본 유성철은 넋을 잃었고 고국방문시 비방자료들을 모아오겠다는것을 서약하였다.

그런데 막상 고국에 와보니 모든것이 놀라움을 자아내는것들뿐이였다.

유성철부부는 고국의 일신한 면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따뜻한 동포애적환대에 거듭 사의를 표하며《조국을 버리고 쏘련으로 간것이 부끄럽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러니 남조선당국이 요구하는 비방자료를 얻는것은 고사하고 이미 돈을 받고 약속했던 남조선행각도 유야무야될 형편이였다.

진실로 과거를 반성하고 인생전환을 할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지만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유성철부부는 량심보다 돈을 택하는 길로 나섰다.

그들부부는 방문일정도 끝나기전에 서둘러 고국땅을 떠나버렸고 그해 가을 남조선에 가서 자기의 넋을 팔기 위한 너절한 홍정을 벌렸던것이다.

유성철에게는 정치적신념도, 량심도, 체면도 없으며 그를 움직이는것은 오직 돈뿐이다.

돈만 준다면 구더기에게도 절을 할 위인이 바로 유성철이다.

이외에도 박갑동, 정상진, 강상호 등 교포사회의 분렬을 꾀하고 조선의 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작태를 일삼고있는자들은 례외없이 추악한 반역자들이며 가증스러운 인간쓰레기들이다.

한줌도 못되는 이 무리들의 비렬한 행위는 우리 교포들의 한결같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교포사회의 단합을 이룩하며 통일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속에서 이러한 배신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의 각성을 높이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

우리는 고국의 북의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며 오직 민족의 편이다.

우리는 고국의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바라는 민족의 성원일따름이다.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해외교포들을 서로 리간시키고 싸우게 하여 반북소동과 반통일모략책동에 리용하려 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이와 함께 이미 제명을 다 산 너절한 배신자, 인간쓰레기들은 이제 더이상 교포사회의 공기를 어지럽히지 말고 지체없이 력사의 무덤속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끝으로 나는 선생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을 더 많이 편집해주기 바란다.

조선속담

• 고운일 하면 고운밥 먹는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칭찬을 들으며 먹게 된다는 뜻.

• 큰북에서 큰소리 난다

① 북이 크면 클수록 큰소리가 나듯이 사람도 그 됨됨이 뛰여나고 아는것이 많으면 큰일을 할수 있음을 비겨이르는 말.

② 보다 훌륭한 조건에서 보다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뜻.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례절있게 보이고 행동거지가 고상하면 그만큼 남에게서 례절있는 대접을 받을수 있다는 뜻.

만화

두 친구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초동이라고 부르는 총각과 막동이라고 부르는 총각이 앞뒤집에서 살고있었다.

그들은 무척 친하게 지내는사이였다.

초동이와 막동이는 소꼴베러 가도 함께 다니고 나무하러 갈 때도 늘 함께 다니군하였다.

초동이는 어쩌다 새 짚신이라도 한컬레 삼게 되면 먼저 막동이것부터 삼았다.

막동이는 막동이대로 어쩌다 수수떡이라도 빚게 되면 한두개쯤 남겨두었다가 초동이한테 주었다.

하루는 막동이가 초동이를 보고 말하였다.

《애, 초동아.… 우리 아무리 죽을 고비에 맞다들어도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지 말구 살자.》

막동이의 말에 초동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였다.

그날도 초동이와 막동이는 나무를 하려고 지게를 걸머지고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얼마쯤 걸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멀지 않은 숲속에서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에서 걸어가던 막동이는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숲속을 헤치며 시꺼먼 털이 부수수한 황소같은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있었다.

(저 곰한테 잡히기만 하면 영낙없이 죽겠구나.)

더럭 겁이 난 막동이는 더 생각할새없이 지게를 벗어던지고 옆에 있는 큰 나무우로 허둥지둥 기여올랐다.

뒤에서 걸어오던 초동이는 웬 영문인지 몰라 허둥거리는 막동이를 멍청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는동안에 곰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때에야 곰을 본 초동이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몸을 피할사이도 없었다.

(꼼짝 못하고 곰한테 잡혀죽었구나.)

순간 초동이의 머리속에는 불쑥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곰은 죽은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고 했지. 이젠 달아날수도 없으니 죽은척해보자.)

초동이는 얼른 지게를 벗어던지고 땅에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눈을 꼭 감고 숨을 딱 멈추었다.

어슬렁어슬렁 다가온 곰은 발로 초동이를 툭툭 건드려보았다. 고개를 기웃기웃하며 초동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그러다 곰은 초동이의 얼굴에 주둥이를 대고 한참 있었다.

초동이는 숨을 딱 끊고 꼼짝달싹하지 않고있었다.

그러자 곰은 초동이가 죽은줄로만 알았던지 다시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초동이는 《후—》하고 긴 숨을 내쉬였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편 나무꼭대기우에 올라가 벌벌 떨며 내려다보고있던 막동이는 곰이 멀리 사라진 다음에야 어기적어기적 나무에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온 막동이는 초동이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나무우에서 내려다보니까 곰이 널 잡아먹을 생각은 않구 네 귀에 대고 무슨 말만 한참 하다 가더구나.

그래 곰이 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막동이가 묻는 말에 초동이는 쓴웃음을 짓고나서 말하였다.

《응, 별다른 말이 아니야. 곰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죽을 고비에 맞다들었을 때 제 동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여서는 안된다고 하더라.》

초동이의 말에 막동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수그리였다.



력사유물

거북선

거북선은 16세기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거북선은 과학과 문화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재능있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견고하고 위력한 병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거북선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15세기 초부터였다.

1413년에는 거북선을 만들어 림진강에 띄워 왜선(일본해적선)과 싸우는 연습을 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한다.

그후 1591년에 리순신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되면서 앞선시기의 유산을 이어받아 거북선을 개량완성하였다.

거북선은 사천앞바다싸움을 비롯하여 임진조국전쟁(1592년- 1598년) 때 바다싸움에서 왜적함대를 격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거북선의 완성과 전투에서의 그 사용은 중세기 해군전술사상 처음으로 접현전으로부터 화포기동전으로 넘어갈수 있게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거북선의 길이는 113자(34메터이상), 너비는 14자 5치이다.

거북선의 앞에는 룡대가리모양의 선두를 설치하였는데 룡대가리안에서는 류황과 염초를 태워서 연기를 안개처럼 밖으로 내뿜어 적들로 하여금 지척을 분간할수 없게 하였다.

특히 연기속에는 독기가 있어서 적들이 접근하는것을 불허하였다.

거북선은 유력한 포로 무장하였는데 발사할수 있는 구멍이 수많이 있었다.

갑판에는 +자로 길이 나있으며 길이 없는곳에는 칼과 송곳을 촘촘히 꽂아서 갑판으로 적들이 기여오르지 못하게 되였다.

노는 배의 량쪽에 각각 10개씩 모두 20개가 있다.

배안에는 방이 26개 있었는데 화포, 활, 화살, 칼 등 무기를 넣는방과 군사들이 있는방, 지휘관들이 있는방, 함장실 등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배들은 돛배로서 군인들과 전투기재들이 로출되여있었으나 거북선은 이 모든것이 배안에 있었으므로 적의 사격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거북선은 그 구조가 견고하고 안전하며 속도가 빠르고 화력장비가 우수하여 접현전 또는 포화로써 적선을 격파할수 있는 위력한 병선(군함)이였다.

본사기자

